



# 時計塔

## SIGETOP



2022년 7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9권 3호

PO Box 901, McLean, VA 22101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田璟培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變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 就任辭

신임회장 전 경 배 (75)

존경하는 북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이 북미주 동창회 회장을 맡게 된 75년 졸업 전경배 인사드립니다.

흔란스러운 2년 반을 보내고 이제 좀 Covid에서 풀려나 정상으로 돌아가나 했더니 아직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군요.

이성길 전 회장님, 안우성 회장님과 임원들, 서윤석 학술대회 준비위원장과 위원들께서 쉬지 않고 많은 수고를 하신 덕분에 37차 학술 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이루어내신 여러 동문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의 임무는 여태까지 지켜온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전통과 역사를 잘 보존하고 지키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동창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모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이고, 시계탑이 없는 미주 동창회를 생각할 수 없기에 시계탑의 발전을 위해 Website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그린 프로젝트에 달려있다고 생각되기에 젊은 동문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Green Project를 키워 가겠습니다.

각 동기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동창회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동문 여러분의 참여뿐만 아니라 선배 미망인 분들의 참여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은 71년 졸업 김성환 동문으로, 벌써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인사를 마칩니다.

2022년 7월 LA에서 전경배 올림.



## 離任辭

회장 안 우 성 (76)

다사다난했던 두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유례가 없이 두 회기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인데도 묵묵히 힘이 되어주신 전국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동창회를 늘 소중하게 여기시는 선배님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창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비록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난 6월 23-26일에 Washington DC, 버지니아의 Westin Hotel에서 여러해 미루어왔던 37차 학술대회를 재개하고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울했던 우리 동창회에 활기를 북돋아 넣었습니다. 6.25 사변 후 낙후되었던 우리나라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지난 60년간 기여해온 서울의대 학술대회의 역사적 사명을 지켜냈습니다. 팬데믹이 조금 수그러들고 예방접종을 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조이면서도 꼭 해야 되는 삼 년이나 밀렸던 행사였습니다.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그래도 혹시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대회 전 학장님과 이규언 부학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먼 거리에서 항공편으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참여하신 국내외 동문과 가족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삼 년간은 우리 모두에게 암흑기와도 같은 세월이었지만 이번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힘든 기간 중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결 호 없이 모두들 기다리는 시계탑을 발행, 배부하신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신문은 Website(주광국, 송경민 주관)와 더불어 우리 동문들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소통 기관입니다. 첫 호가 발행된 지 거의 50년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계탑입니다. 서윤석 편집장님과 편집위원 여러분께 큰 절을 드립니다. 또한 강민중 장학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장학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를 맡아주신 김영애 여사님, 김성환 선배님, 김자성 재무님을 비롯하여 백승원 박사님, 차민영 부회장님, 김태웅 선배님, 신용계 선배님, 여러 임원님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본인이 COVID-19 일선에서 환자와 씨름을 하느라고 생긴 빈자리를 채워주신 많은 분들 특히 Mrs, Jamie Kim 사무장님, 인쇄소 황창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좋습니다. 7월 1일부터 중책을 이어받으시는 전경배 신임 회장님께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학술대회를 통하여 더욱 융성하는 우리 동창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임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동문 여러분, 팬데믹이 빨리 수그러들고 모두들 건강하시고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022년 6월 30일

## 제2차 대의원회 소록

2022년 6월 23일(목요일) 동부시간 오후 5시 30분, 37차 학술대회장 참가자:

김한중(62) 서윤석(68) 김성환(71) 이성길(71) 전경배(75) 안우성(76) 한승신(76) 남명호(81) 서귀숙(84) 김영애 여사

proxy:

이만택(58) 최종진(59) 채규철(59) 강창욱(61)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이명희(66) 최순채(66) 최영자(66) 신규호(68) 주광국(68) 강창홍(71) 김일영(71) 이원택(71) 조병선(71) 정균희(72) 박진섭(73) 서인석(73) 김원정(75) 김동훈(77) 차민영(82) 김자성(85) 신원석(88) 강민중(91) 박종철(99) 박은경(00) 송경민(09)



참석자(존칭 생략): 앞줄 좌로부터 전경배 신임 회장, 안우성 회장, 김한중, 서윤석 뒷줄 좌로부터 김영애, 남명호, 서귀숙, 이성길, 제이미 김사무장, 한승신, 김성환

- 2023년 6월 23일(목요일) 동부시간 오후 5시 30분에 제37차 학술대회장에서 2차 대의원회를 시작하였다.
- 지난 회의 초록(2022년 1월 22일 제1차 대의원회)을 요약하여 읽은 후 참석 전원의 동의를 받고 2차 대의원회의 각 부서 보고가 이어졌다.
- Treasurer(85 김자성) 재무 서면 보고: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17일까지의 은행 잔고 액수와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 액수를 보고 하였다.
-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Fund Manager, John Baek) 서면 보고: 장학 fund와 특별 fund 모두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돌아오는 수익률이 주식 이 오르고 내리는 데에 비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임을 보고 했다.  
매년 받는 \$10,000 재 투자와 2만 불에서 초과 금액 보내온 \$2,813에 대한 요청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재투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로 하였다.
- Charity committee (66 최영자 chair) 서면 보고:  
COVID 19으로 인하여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NYCOCO(뉴욕장에 아동지원센터)이 팬데믹으로 닫혔던 것이 아직 제대로 운영이 이어지지 않아서 제50회 안우성

회기에는 매년 지원되는 \$2,000을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보고가 있었다.

\*세 명의 8회 미주함총공로상 수상자 모두가 미주서울의대 동창회에 기부 의사를 밝히시면서 이재승(61) 동문은 상금(500만 원)에 더하여 \$5,000 기부 의사를 \$3,000 general fund, \$2,000 내년 학술대회 기금으로, 이홍표(64) 동문은 상금 전액(500만 원)을 general fund에, 최영자(66) 동문은 상금 전액(500만 원)을 Charity fund에 기부 의사를 대의원회에 알렸다.

6. Office management(84 서귀숙 chair) 보고:  
동창회 사무실의 업무 과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각 회장단의 맡은 바 수행에 더 충실해져야 함의 중요성이 크다고 발표하였다.

동창회 유지 발전을 위하여 이 점이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모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회장단의 임무를 각자 맡은 바를 더 성실하게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7. 각 committee의 report를 마무리 한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의논이 이어졌다. 좋은 덕담이 오가며 조금 더 원활한 동창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임기를 by law에는 1년이 임기이나 2년으로 묵시적 실행을 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참석자 모두가 실행하면서 by law를 수정해 보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62년 졸업 동기가 졸업 60년을 맞아서 한국 본교에 기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미주재단을 통하여 보내기로 하여 각 donor의 미국 내에서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리는 것을 시계탑과 website을 이용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8. 힘든 코로나 상황을 이기고 참석해 주신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대의원회 참석자의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되었다. (사진: 김성환 동문 사회로 진행된 회의 장면)





### 3년만에 성황리에 개최된 제37차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에 참가한 동문들



#### 골프대회 보고

6월 23일 북 버지니아의 Westfields Golf Club에서 15명의 미주 의대 동문이 골프 경기를 가졌다. Covid-19 위험으로 기대했던 참가 인원보다 적은 숫자이나 2년 연기되었던 골프모임이라 기대가 커서 준비에 만반을 했다. 하지만 전날부터 미 동부지역을 강타한 폭풍으로 격한 바람과 우천으로 골프 경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되었으나 다행히 큰 비는 없이 70도의 기온으로 18홀을 무사히 진행했다.

61년 졸업부터 84년 졸업 동문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특히 서휘열(61)과 진창건(61) 동문의 참석은 후배 동문 골퍼에 감동을 주었고 이 대회를 빛나게 하였다.

근접상에 백승원(79) 동문, 서귀숙(84) 동문 그리고 Mrs. 백승원이고 이날의 우승자는 김한중(62) 동문이며 총 점수 82로 시니어 골퍼의 대망인 Age Shooter 이었다.



버지니아에서 개원 중인 신원석(88) 동문이 골프 후 점심 식사를 후원하였다.



사진: 우승자 김한중(62) 동문, 근접상 서귀숙 동문과 미세스 백승원, 좌로부터 백승원, 전경배, 김주평, 한승신 동문 - 신용계(68) 보고

#### 제8회 미주합춘 공로상, 학장상 시상식

이번 37차 학술대회에서 제8회 미주 합춘 공로상 시상과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미루어왔던 시상도 함께 가졌다. 금년도 합춘공로상 수상자 이재승(61), 이흥표(64), 최영자(66) 동문이 수상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강수상(57), 전희택(61), 허선행(64) 동문, 2021년에는 강상진(59) 오형원(59), 이명희(66) 동문들이 수상했다.

함께 진행된 학장상에는 2020년 채영광(02), 2021년 강민중(91), 2022년 장세권(01) 동문 등이 수상했다.

수상자 중 이재승(61) 동문은 상금 500만원(\$3,842)에 더하여 \$5,000을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General fund \$3,000, Convention donation \$2,000, 이흥표(64) 동문은 상금 전액을 General fund, 최영자(66) 동문은 상금 전액을 Charity fund 에 기부하시겠다고 하셨으며, 시계탑 4대 편집장으로 또 현재 시계탑 편집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허선행(64) 동문은 상금 전액을 기부하시며 시계탑 발행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 71년 동문 졸업 전자앨범 제작

전자앨범을 Power Point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Cell Phone으로도 파워 포인트 App이 있으면 볼 수 있지만 Desktop 이나 Laptop으로 보아야 크게 보입니다.

아마추어인 제가 배워가면서 만들었으니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진의 양이 많아 attachment로는 안 가고, Microsoft의 Cloud인 One Drive에 올라가 있는 것을 link를 보내드리니 click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진이 많으므로 처음 열 때는 참을성을 가지고 오래(컴퓨터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30초정도) 기다리면 모두 열립니다. 물론 컴퓨터에 Microsoft Office가 깔려 있어야 Power Poi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link를 click해도 열리지만 안되면 copy해서 Web address에 paste해서 열면 됩니다. - 조병선(71, 버지니아)드림

<https://onedrive.live.com/edit.aspx?resid=230D81959014D23615894&ithint=file%2cpptx&authkey=!AE6CFiDe3rX9bZE>

**독후감** 이번 37차 컨벤션이 끝난 후 Co-chair였던 조병선 박사가 보내준 71년도 졸업 50주년 전자앨범을 읽게 되었다. 이 학년은 미주동창회에 지속적인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학년이다. 58년, 59년, 61년, 63년, 64년, 65년, 66년, 68년, 73년 학년들처럼, 그중에서 근래에는 71년 졸업 학년이 가장 단결을 잘하고 열정적이고 희생적이다.

이 앨범에서는 김일영, 김성환, 이성길 세 명의 미주동창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원택, 노재홍 전 시계탑 편집장들, 온기철 역사가, 고인이 된 세포유전학의 석학 조세진, 간이식 마취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강유구 그리고 저서를 많이 쓴 이원택 시인을 비롯하여 새로 영문 Childhood-Onset Depression이란 저서를 쓴 황수택을 우선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두 잘 아시다시피 평소에 우리 미주동창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김성환님의 부인 김영애 수필가가 쓴 이 전자앨범의 서문을 읽을 수 있다. 환자 진료에 시달리는 우리 동문들에게 영혼의 쉼터를 선사하려는 그 고운 마음씨를 느끼

#### 서진석 가족이 보내온 기부금

수년 전에 타계한 우리의 벗 서진석(68) 님의 부인 송민희 여사가 37차 컨벤션을 위하여 \$1,000을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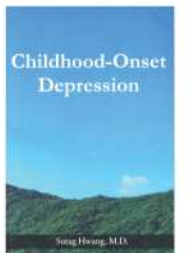
서진석 동문이 있었더라면 그가 즐기던 골프 참여는 물론 유머로 가득한 대회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신라의 달밤' 노래를 가수 현인 보다 더 잘 불러서 동창회 모임을 더욱 빛냈을 것이다.

서진석 부부는 성공한 2남 1녀를 두었으며 막내아들이 NBC TV Program을 수년간 방영한 Danny Seo이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시작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환경 운동가이다. 분리수거, 유기농 식품, 동물 보호, 유기농 필수품 사용,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환경 보호 등을 중학생 때부터 주장하면서 수만 명의 친환경단체 회원들을 이끌고 있다. 글; 서윤석 (68)

#### 황수택(71) 동문 저서 발간

Seattle에 거주하는 황수택(71) 동문이 'Childhood Onset Dprression'이란 내용으로 영문 서적을 출간했다. 그 치료에 대한 임상 경험과 이론을 명시한 점이 주목을 끈다.

황 동문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정신과 수련을 마치고 시애틀 근처에서 일하다가 귀국하여 10여 년은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은퇴 후 최근 Seattle로 돌아왔다.



#### 참가 故人들의 冥福을 빕니다

이희성(58) 동문 별세: 미시간에서 정신과를 하시다 올랜도로 은퇴하시고 다시 미쉬간으로 사시다가 지난 6월 별세 하셨습니다.

전용주(60) 동문 별세:

반택용(63, 소아과 전문의) 동문 별세: 뉴욕에서 거주하시다가 지난 2022년 5월 1일에 오랜 투병을 마치고 소천 하셨습니다.

이재명(63) 동문 별세: 2021년 10월 18일 별세 하셨다고 미망인께서 지난 호 시계탑을 받으시고 \$200 General donation을 보내오시면서 알려 오셨습니다.

이기진(72) 동문 별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활동하시다가 후로리다로 이주하여 거주하시다가 지난 6월 16일 pulmonary fibrosis로 별세하셨습니다.

김웅진(74) 동문 별세: 지난 6월 25일 별세 하셨습니다. Radiology 전공

게 한다. 워싱턴에서 큰 교회에서 봉사하는 슈바이처 박사처럼 훌륭한 박동수, 조병선 등등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얼굴이 모두 낯설지 않다.

초반부에는 시계탑, 병원, 학교를 소개하고 작고한 동문들 추모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나온다. 이어서 교가 그리고 한 장 두 장씩 동문들의 옛날 사진이 가나다 순서대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현재 사진과 가족사진이 같이 들어있다. 50년전 옛날 졸업 시 흑백사진과 근래의 천연색 사진이 긴 세월을 이어준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변화되어온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 자랑스러운 모습들이다. 그런데 본인은 그 많은 사진을 하나 하나 보면서 저절로 나오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애련 심신한 의학도의 모습과 그 학생의 아버지(어머니)나, 할아버지(할머니)처럼 변한 흘러내리는 얼굴들이 함께 보인다. 눈꺼풀이 늘어나고 이마가 벗겨지거나 머리털이 은빛으로 변한 그 선한 모습들, 파란만장의 인생의 역경 속에서 얻은 권위있고 자비로운 그 새로운 얼굴들이 비교가 된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1968-1971년 졸업 후 대구 육군 의학교와 50사단에서 군의후보생 훈련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것이다. 그 3년간 그곳에서 담당 교관으로 복무한 본인은 어떤 분의 얼굴은 낯설지 않다, 학창시절 학년은 3년 차이이지만 같은 교정에서 만나서 그런가? 나는 조세진 동문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본관 쪽으로 인사를 나누며 내려오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지만, 미주동창회 일로 아니면 그 대구 효목동에서 보았는지 낯설지 않다. 4층 학생도서관 도서위원 오상현, 박진국, 미쉬간의 오동환, 강태수, 배성호 목사님, 양성훈, 김제홍, 강창홍, 광승용 전 뉴욕 서울대 동창회장 다 낯설지 않다.

이 앨범은 비싼 요금을 내고 우편으로 보낼 필요도 없고 무겁게 책장에 꽂아두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 장점이 많은 최초의 50주년 전자앨범 발행을 알려온 조병선 박사와 이 일을 추진하고 완성한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드린다. - 글; 서윤석(68, 버지니아)



### 친구 전용주를 기리며

나의 대학 동기들 절반 이상이 이미 하늘나라에 갔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전용주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을 듣고는 Mrs. 전용주와 통화를 할 때에는 너무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용주와는 가깝게 지내던 친구니까 슬프지만 그의 인품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쉽고 서운하다.

용주는 다른 동기에 비해 특별한 재주가 있다거나 더 훌륭한 점이 뚜렷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특별한 성품이 있었다.

첫째로 용주는 동기들을 사랑했다. 우리들 동기는 매년 2월에 Lakeland, Florida에서 2주간 썸 골프를 치면서 만났다. 캐나다 자기 집에서 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집에서 3시간 반을 운전해서 Halifax 공항에 가서 비행기로 토론토로 와서 다시 뉴왁공항에서 또 후로리다 비행기를 갈아타야 된다. 힘든 여행이다. 그런데 과거 2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왔다. 친구들 생각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철저했다.

### 용주야 보고싶구나. 그림구나.

전용주는 인품이 단정하고 순수하며 친화력이 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skype leader입니다.

2년 전에 용주의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60년 졸업 14회 동기 3명이 skype로 매주 만나고 있는데 너도 join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었습니다. 나의 실력으로는 skype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아들한테 부탁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그의 열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모이게 된 skype 회원이 9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대면하면서 옛 학창 시절의 추억담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삶의 건강관리 등 모든 주제의 핵심과 결말을 매듭짓는 일은 리더인 용주의 몫이었습니다. 6주 전 모임에서 그는 기발한 idea 를 냈습니다. 우리 동기 4가정이 살고 있는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내년 봄에 3박 4일 정도의 동기회 모임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는데 아쉽게도 우리의 리더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주 전 모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2주 전에 COVID-19 booster shot을 맞았는데 혹시 그 부작용 때문일 것이라는 말에 1-2주가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2주 전에는 hemoglobin이 6으로 떨어져서 수혈을 받았고 이어서 행한 종합 검사 결과가 myelodysplasia로 진단되

둘째로 남을 잘 배려하며 슬기가 많았다. 결정하기 힘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용주에게 묻는다 그리고 현명한 대답을 받았다.

셋째로 Leadership이 있었다. 용주가 Idea를 내서 동기들 9명이 매주 월요일 4시에 Skype로 만나서 잡담을 한다. 옛날 학창 시절에 있던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하고 또 한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매주 한 시간씩 떠든다. 용주가 항상 Leader다. 그리고 너무 재미있다. 기억력이 좋아서 옛날이야기로부터 현재 한국의 정치 이야기까지 끝도 없이 떠든다. 용주가 주선해서 거의 매년 여행을 다녔다. 알래스카, 하와이, 독일, 다뉴브 Cruise 등 함께 다녔다.

용주가 먼저 간 것이 내내 아쉽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이지만 역시 헤어짐은 아쉽다. 용주야 We miss you.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라 그리고 또 만나자.

전희근(60, 필라델피아)

었다면서 원인도 모르는 병이니 치료방법이 있겠나? 그의 가냘픈 목소리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역습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난주 모임에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우리는 전희근 동기가 cell phone으로 Mrs. 전과의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숙연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용주가 병원에 입원했으며 먹지를 못해 feeding tube를 넣었고 heart trouble이 생겼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용주는 말없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마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타계 소식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뿐입니다. 멀리 떠나간 용주에게 그리움을 담은 서신을 보내면서 마음의 위로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용주야, 네가 보고 싶고 그림구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영민하기 바라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네.

그곳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신키 skype가 있겠지. 훗날 우리 친구들 하나, 둘 그곳에서 모이게 될 때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heaven skype의 리더로서 멋진 너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바라네. 덕송.”

이덕송(60, 남가주)

### 김웅진 동문을 회고하며

예과 때 처음 만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세상에서 작별의 인사를 할 때가 되다니 세월이 살같이 날아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구려. 나이 70이 넘으니 이 세상 떠날 준비는 해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나만이 아닐 거요. 103세 되신 김형석 교수가 김태길 안병욱 교수 살아계실 때 만나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65-75세라는데 세 분이 공감했다는 데 고별인사를 하려 하오.

고교 동창인 강기서 동문과 항상 같이 다니는 것 보면서 가나다 이름 순서로 두 반으로 나누어지니 자주 만나게 되었고 본과 3학년 때 7명이 함께 ECFMG 공부하며 항상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던 모습이 그림구려. 결혼식 때 함잡이한 기억도 생생하오. 군의관 마치고 모교 해부학 교실에 있다 모교에서 방사선과 수련의 과정 마치고 1981년 도미해서 후러싱 뉴욕에서 radiology practice 하다 최근까지 Lincoln Medical Center, Bronx에서 full time으로 일했지 않소. 뉴욕 같

기회 있을 때마다 연락하면 개업 바쁜 중에도 반갑게 만나주고 특히 우리 아이들과 뉴욕 집 방문했을 때에 졸업하고 처음 만난 김주이 최태식 동문 또 김정용 선배 등 초청해 대접해 준 것 고맙소이다. 또 매년 연말이면 통화하던 터인데 작년에는 연락이 잘 안되었소. 남달리 어려운 한자를 많이 알고 또 연말이면 휘호 체로 안부 카드 보내주던 것도 더 이상 못 보겠구려. 한의사이신 아버님 덕분에 약초 넣는 많은 서랍들에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들로 이름들이 적혀있어 익히지 않았나 생각되는구려.

우리 동기의 만년 회장인 은희철 동문의 수고로 40주년 기념행사하고 지리산 한화 리조트에서 놀다 전라남도 땅끝 마을까지 함께 여행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떠오르오.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구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며 아들(용한) 딸(방한) 잘 키워 세 손자 손녀 두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맑은 일에 신실한 가장

이었소.

Pulmonology and critical care 하는 용한에 의하면 COVID booster shot 맞고 많이 힘들어하다 정확한 진단인 AL type cardiac amyloid and 20% plasma cells in marrow with amyloid deposits (systemic amyloidosis) 받은 게 6월 14일. 그리고 치료 시작하기 전에 heart failure로 부르심이 왔다 하니 급작스러운 죽음에 실감 나지 않소. 한편으로 장기간 치료하기 힘든 병과 씨름하며 고통받지 않은 게 다행이라 생각하오. 함께 공부했던 방사선과 정용인 동문도 체장암 진단받고 치료 시작하기 전에 부르심 받은 것 기억하오.

모든 생명은 유한한 것이고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타향살이 접는 일이 각자의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다시 깨달

으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밭줄을 꼭 잡고 이사 준비하며 삶을 정리해야 하겠소. 그러나 우리의 분향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기에 또한 산 소망이 있다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설레고 즐거운 일이니까.

친구 구재훈(74, 남가주) 올림



사진 설명: 4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웅진, 구재훈, 김상현 (졸업 후 30년 이상 중국 의료선교함)

### 친구 이기진을 보내며

기진은 West Virginia에서 존경받던 훌륭한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일하는 걸 즐긴다고 했는데, 갑자기 2015년 은퇴를 하고 올랜도로 이주한다고 해서 나는 한편 놀라고 또 기뻐했습니다.

나는 기진과 미국 생활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았던 곳은 큰 도시의 한인 사회가 아니어서, 뉴욕이나 LA에서 동기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재미있게 지낸다는 소식이 꽤 부러웠습니다. 내 전공이 심장내과였으므로 심장외과의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했고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직접 해야 되는 일이 많았고 자주 응급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가 식사를 하면 엄청나게 빨리 마치는 것도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집안일을 도와줄 시간이 없으니 부인 정환 씨께서는 혼자 딸 넷을 키우고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기진이 올랜도로 은퇴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동기 동창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고 흥분한 나머지 나는 말도 안 되는 약속까지 했었지요. 나는 선천적으로 술을 입에도 못 대는데, 혼자 술을 배워서 기진이 오면 같이 대작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기진도 술을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나 같이 술을 못 했는데, 대학교 때 자기 전에 소주 몇 잔과 마늘종을 먹으며 혼자 수련을 거듭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결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닌 걸 깨닫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 기진에게 약속을 어긴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올랜도에서 심장내과 개업을 30년 동안 하였고 기진이 보다 2년 전에 은퇴했는데, 곧 이곳의 Reunion Golf Resort에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18홀 골프 코스 3개가 있고 모두 재미있게 꾸며져서 우리 학년 동기 골프 모임도 여러 번 했었고, 동기 석창호도 일찍이 콘도를 사서 겨울에는 자주 놀러 오는 곳입니다.

기진은 올랜도에 와서 교통이 좋고 음식점들이 많은 동네에 새집을 짓고 이사했습니다. 올랜도는 방학과 휴가 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지만, 특히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은 곳입니다. 탑 클래스 골프 코스가 가까이에 여럿이 있고, 유명한 골프 선수가 많이 살며, 겨울에는 기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더운 여름 6개월도 아침 일찍 티타임 하면 더위도 견딜 만하고 골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3시간 정도면 한 라운드가 끝나서 샤워하고 점심 먹으면 그때부터는 에어컨이 있는 집안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요.

겨울에는 북쪽에서 많은 친구들이 내

려와서 함께 자주 골프를 같이 치고 음식점에도 다니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름엔 기진과 우리 부부 넷이 일주일에 3번씩 골프를 쳤습니다.

우리의 많은 추억은 골프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골프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고, 허황한 농담, 장난스러운 행동, 그리고 웃음소리가 모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들 같이 골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우리는 또 사교춤도 배워보고, 여러 번 여행도 같이 했습니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그 외 발칸 국가들, 하와이 오하이의 산골짜기에서 골프도 쳤고, 마지막 여행으로는 2018년에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경치 좋은 곳에서 기진과 정환 씨는 제 사진에 자주 나오는 등장인물이었습니다. 제 처도 기진이 서울에 있는 오빠와 비슷한 점이 많으며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기진이 화를 내는 걸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관대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기진이 아프다는 것을 2019년 여름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해 6월까지의 매주 3번씩 골프를 쳤었는데, 기진도 나도 가족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쉬 후에 전화하니 그 사이에 갑자기 폐렴이 생겨서 며칠 동안 입원했고, 그 후부터는 숨이 차서 골프를 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움과 실망이 컸습니다. 내과를 하면서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환자들을 여러 보았고, 예후가 안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진의 두 딸은 의사였는데 모두 오하이오의 콜럼버스에서 일을 했고 셋째 딸 Amy가 폐전문의여서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더 악화되니까, Cleveland Clinic으로 옮긴 뒤에, 우여곡절 끝에 2021년 5월 폐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경과가 좋아서 약을 하루에 약 30개 이상을 복용한다 하면서도 부작용 없이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걷고 운동을 해도 숨이 별로 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3월에 올랜도에 와서 한 달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다가 직접 보게 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기진은 훨씬 건강하고 젊게 보였으며 옛날의 온화하고 점잖은 태도도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Covid 때문에 격리도 하고 서로의 스케줄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2주 후에 드디어 옛날 고정 멤버들과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진에게 큰 이벤트였습니다. 한 번은 나에게 전화로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아픈 회복 중에도 골프를 많이 생각했고 병상에서 하루에 골프 스윙을 여러 번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라운드 하기(다음면에 계속)





# Bach Cello Suites의 추억

이 건 일 (68, 남가주)

Bach는 6개의 무반주 첼로 조곡(The six Cello Suites, BWV 1007~1012)을 작곡하였는데 여러 연주자들의 연주 중 Casals의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Rostropovich나 Yo Yo Ma의 연주도 좋아한다. 특히 어느 교회에서 연주한 Rostropovich의 연주가 좋다.

내가 다 늦게 미국에 건너와 다시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던 어느 날, K 군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자기가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 이번 시카고에서 공연하니 들으러 오라는 이야기였다.

그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 외에 그가 또 미하기 전에 한 두어 번 만나 보고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누게 되는 대화였다.

흔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시카고 공항에서 바꾸어 탈 비행기 기다리면서 나한테 전화하면서, '지도도를 보니 너 사는 데가 시카고에서 별로 멀어 보이지 않으니 나 좀 만나러 이곳 오해어 공항에 오너라.' 하는 식으로 말하길래 '너도 나 사는 데가 시카고에서 가까운 줄 아는가 본데 차로 적어도 4.5 시간 거리야. 그리고 너도 해보아서 알지마는 수련의가 어떻게 갑자기 이틀씩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냐?' 하면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그럴 줄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썼더라도 그 공연을 들으러 갔어야 하였는데, 참으로 후회가 된다.

사는 것은 후회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K 군과 나의 인연은 예과 일학년, 막 대학생이 되던 날 청량리 교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이후 친구 다섯 명이 어울려 다니게 되었는데, 우리는 등산, 캠핑, 여행, 영화관람, 마이티, 브릿지 게임, 화투 치기, 당구, 잡담, 술 마시기 등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었고 특히 여학생들과의 그룹 미팅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었다.

그중 그와 나만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여 둘이서 많은 시간을 음악 이야기나 감상으로 보내었다. 또 같이 시향이나 KBS 정기 연주회나 무슨 특별 연주가 있으면 그것들을 찾아다녔고, 특히 이대 음대 정기 연주회, 졸업 연주회에는 수도 없이 갔다 왔었다.(!)

그는 원래 부산이 고향이라 고등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 살게 되었는데, 의대 재학 시절에는 효자동 전차 종점 근처에 있는 제법 큰 한옥에서 누님 부부, 두 여동생과 살고 있었고 여분의 방이 있어서, 그의 집은 우리들이 학교 수업 빼먹고 땡땡이치거나, 함께 모여 시험 공부할 때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되었다.

학교에 갔다가 그가 수업에 안 나온 것을 보고 그의 집으로 가 보면 그는 첼로 연습 중이곤 하였다.

그가 하는 연주가 끝나면 우리 카잘스가 연주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즐거 들었다. 이 곡은 그가 아주 좋아하였던 곡이고 지금도 내가 아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다. 카잘스 연주는 그의 말대로 약간 거친듯하면서도 꾸밈이 없는 진솔한 연주였다고 생각한다.

잡음이 가득한 오래된 78회전 축음기판 레코딩이었지만 그 음악만은 살아 있었다. 지금도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를 생각한다.

몇 년 전에 드디어 카잘스가 연주하는 이 곡이 들은 CD를 하나 구했다. 지금도 그를 생각하며 들곤 한다.

그의 집에 모여서 밤새워 가며 시험 공부할 때면 그의 누님이 야식으로 경상남도식 김치국밥을 내어 오곤 하였는데, 원래 나는 서울 출신이라 항상 비교적 담백한 음식에만 익숙하다 보니, 그 맵고 짠 경상도식 음식, 특히 부산식 김치, 젓갈 잔뜩 넣고 빨갛고 맵게 만든, 그 자극성 가득한 김치나 그 김치로 만든 김치국밥은 하나의 문명 충돌(!) 이었다.

그러나 아주 맛있었다. 어쩌다 이 음식 대할 때마다 K 군이 생각 난다.

의대 3학년 때 그가 의대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휘자로 임명이 되어서 단원을 모집하게 되었다. 내가 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TV 연속극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오합지중을 모아 놓게 되었던 것이지.

의대 공부 중에 어디 그리 악기 연습할 시간들이 있었을까?

모자라는 파트는 그가 음대에 가서 구걸하여 채워 넣었는데 그렇게 해도 단원이 모자라게 되니 나보고 작은북을 치라는 것이었다. 생전 악기라고는 첼로 석달간 만져 본 것이 전부인데, 악보도 겨우겨우 볼 처지인 나 보고 말이다. 극구 사양하였으나 친구 살려 주는 셈 치고 해달라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몇 번 오케스트라 총 연습에 참여하여 대충 마쳐보고, 실제 연주 당일엔 그가 나에게 지휘 도중 싸인을 잘 보낼 테니 걱정 말라고 하여 그리하자고 하였다.

연주회는 그 당시 세종로에 있던, 불타기 전의 시민회관이었고 내가 나가야 될 연주곡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비엔나 숲속의 이야기'로, 통상 짧게 편곡하여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번은 정식 연주회라 전곡을 연주하게 되었으므로 한 10여 분 되는 비교적 긴 연주가 되게 되었다. 순서가 되어 무대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으니 은근히 겁이 났다.

잘 못하여 큰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옆자리에 몇 년 후배인 L 군이 앉더니 평소에 악단을 만들어 기타 치던 죄로 자기는 조금 전에 갑자기 잡혀와서 심벌을 맡으라고 하는 데,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쳐야 하는 지도 모르는데, 큰일이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벌은 그냥 두 개를 마주쳐서 소리를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연주 부분은 다행히 내가 맡은 작은북과 거의 같으니 내가 때리면 같이 때리면 되고, 내가 연주하지 않을 때 심벌이 연주할 차례가 되면, 내가 북채로 당신 다리를 두드려 박자를 맞추어 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연주하라고 하였다.

이윽고 연주는 시작되었고 나는 열심히 지휘자인 K를 쳐다보다 그의 싸인을 받으면 내 파트를 두드려 대었고, 가끔씩 옆에 있는 L 군에게 눈짓으로 신호하다가, 그 만이 연주를 하게 되면 북채로 그의 다리를 쳐서 장단을 맞추어 주었다.

내 생각에는 우리 둘이 다 맨 뒤에 앉아 있었고, 우리들 앞에는 수많은 다른 연주자들이 있었으므로 우리의 행동이 잘 눈에 띄지 않으리라고 착각하였던 것이다.

연주 중에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길길 거리며 웃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몰라 하다가 누가 설명을 해주어 알게 되었는데, 무대에서 벌어지는 이 해프닝을 모든 관객들이 보았고 너무 우스워서 웃는 바람에 음악회가 아니라 코미디쇼 무대같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다행히 우리 파트는 그 곡 하나로 끝이 나서 오케스트라는 다시 정상적 음악 연주를 계속하였고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끝나고 그에게서 약간의 질책을 받았다.

그 후배 L 선생은 도미 후 오하이오주 북쪽에서 개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은퇴하여 남가주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다. 그 후 어쩌다 만나면 그때 이야기하며 웃었다.

미국에 온 후 K 군이 뉴욕 근처에서 정형외과 수련 마치고 개업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 가끔씩 들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죽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는 그저 망연 자실 할 뿐이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수련 끝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그를 찾아가 보려고 잔뜩 버리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그를 한 번은 만났어야 하였는데 하는 후회감만 들 뿐 당최 무어라고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멀리 떨어져 있어 그의 사망 소식도 장례식

<전면에서 계속> 전에 연습장에서, 아직도 가슴 수술한 자리가 아프다고 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짧은 클럽으로 해보라고 했더니, 가볍게 120야드를 똑바로 보내서, 우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두 놀라면서 기뻐했지요. 병상에서 머릿속에서만 연습하던 게 제대로 나온 거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숏 게임보다는 긴 채를 더 잘했고 한 번은 드라이버까지 쳤는데 우리보다 더 멀리 쳐서 다시 크게 놀랐습니다. 기진이가 좋아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지요. 잘 치고 나니 가슴 아픈 것도 없어졌다며 꿈을 이룬 듯이 만족했습니다. 기진이는 올랜도에 있는 동안 3라운드를 옛날 친구들과 꽤적한 좋은 날씨에, 더 없는 분위기로 즐겼습니다. 한순간에 수술 전후의 어려웠던 상황을 잊었고, 우리는 모두 기진이의 완전한 회복을 기뻐했습니다. 그

리고 그는 올가을부터는 올랜도에서 본격적으로 골프를 하기로 하고 자동차로 오하이오까지 운전해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2주 후에 그동안 골프 연습을 해보았는지 궁금해서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그는 몸이 좀 아프다고 했습니다. 곧 아픈 게 심해져서 검사를 해보니, 온몸에 암 전이가 생겼다는 비보였습니다. 이게 anti-rejection therapy의 악성 부작용이었고, 몇 주 전까지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Cleveland Clinic에서도 아주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기진이는 아픔이 뻗속까지 심하다고 했습니다.

기진이가 세상 떠나기 2주 전에 우리 부부는 콜럼버스를 방문했는데, 그는 황달과 병색이 완연했고 식사를 잘못했습니다. 다행히 Palliative chemotherapy를 받은 뒤라 아픈 것은 훨씬 적어졌고,

잘 먹는 나를 보고 웃으며 먹보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단들이 있을 때 기진이는 이제는 난 다 되었다고 하면서, 나를 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동안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과,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날들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숙연해지고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진이는 폐식식 바로 전에 숨쉬기가 극도로 어려울 때 죽음을 느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자기는 몸이 공중에 뜬 것 같이 느껴졌고,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아주 평온한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가족들이 침대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하고 맑은 정신의 기진이에게 마지막 인사

# 홀로 가는 길

나두섭 (73, 남가주)

내 앞에 길이 있기에 걸어가 보았네  
그 길은 오솔길과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굽이진 길을 따라가 보니

나지막이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도 있고  
허리 높이 자란 하늘거리는 잡목들과  
졸졸 흐르는 여린 여인 같은 실개천도 있더라

님과 같이 걸을 땀 안목에도 없던 그것들이  
나를 정답게 맞아줄 줄을 내 어찌 몰랐던가  
둘러싼 것들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은 없네

호젓한 길에 동반자 되어 주니  
눈 덮인 흰 산 에메랄드 바다도 좋지만  
작은 마음에 벗이 되는 이것에 취하네

누가 세상을 외롭다 하였는가  
함께하는 정다운 친구 아쉽지 않고  
내 마음은 종달새 되어 봄날을 노래하네

아아 이 사는 즐거움 이 흐뭇한 마음  
신데렐라 만난 백마 탄 왕자 부럽지 않고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네

행복은 가진 데 있지 않고 느끼는 데 있더라  
걸으며 생각하니 혼자 가는 길은 있어도  
홀로 가는 길은 없더라



이 끝난 다음에나 들었으니,

산다는 것은 아쉬움과 회한과 못 이룬 일들에 대한 미련 등으로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가 간 지도 벌써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 추억의 K는 긴 앞머리 손으로 쓸어 올리며, 콧등에 내려온 안경 다시 고쳐 쓰는 흥안의 미청년 이요, 같이 술 한잔하며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를 논하던 아마추어 첼로 연주자요 아마추어 지휘자이다.

자, 이제 카잘스가 연주하는 바흐 첼로 조곡을 꺼내 다시 들으려 한다. 그를 생각하며.

를 확실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런 작별 인사는 최후의 희망을 없애는 것 같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때 기진이를 똑바로 보며 그가 나의 미국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친구였다고 말하고, 나도 너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네가 은퇴 장소를 올랜도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많은 시간을 즐겁고 값지게 보냈었다고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기진이의 온건하고 건전한 생각들이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나의 성급함을 길들이게 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가야 할 길이지만, 기진아, 이제는 너의 미소 짓는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구나.

잘 가거라 기진아!  
올랜도에서 먼저 간 친구를 그리며 -김재석(72, 후로리다)





### 장세권 동문

(01년 졸업, 종양학)

Inova Schar Cancer Institute in Fairfax, VA



####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2001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근무하며 진료에 대해 고민할 때, 미국에서 수련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한국에 새로 생긴 Kaplan 학원이 USMLE 온라인 강의 홍보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당첨되어 공보의 근무중에 인터넷으로 시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레지던시 매치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나와서 공보의 3년차 말에 지원을 했는데, 의대 동기 송윤정(류마티스내과 전공, 현 Matica Biotechnology Inc. CEO) 선생이 인턴으로 일하던 Philadelphia의 Albert Einstein Medical Center 내과 프로그램에 매칭되어 2004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 2. 혈액종양학 분야 중에서도 피부암을 주로 보시는군요?

2010년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혈액종양내과 펠로우십이 끝나갈 무렵 아내와 논의하여 Washington, D.C. 쪽으로 가서 정착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친척분들이 D.C. 근처에 계시기도 했고, 미네소타는 겨울에 너무 추웠답니다. 마침 Washington Hospital Center에서 피부암을 전문으로 볼 의사를 찾고 있었는데, 그 때만 해도 피부암이 종양내과에서 그다지 인기있는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치료제들에 대한 초기 임상 시험 결과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여서 피부암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거의 해마다 새로운 피부암 치료제들이 승인되면서 치료가 획기적으로 발전

하게 되어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이 호전되는 것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일주일에 3.5일은 외래 환자를 보고, 1.5일은 연구 및 행정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입원 병동 컨설팅은 2-3개월에 한 번 일주일씩 하고요.

#### 3. Inova 소개 부탁드립니다. 8년째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UVA의 부교수 직함도 갖고 계신데, 진료, 교육 및 연구 환경은 어떠한지요?

Inova Health System은 워싱턴 디씨에서 포토맥강을 건너면 있는 Northern Virginia에서 가장 큰 의료 시스템입니다. 다섯 개의 병원에 약 2만 여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지요. 몇 년전 Inova Schar Cancer Institute를 개원하는 등 최근 수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2014년부터 Inova에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악성 흑색종 및 피부암 전문 진료(Melanoma & Cutaneous Oncology Program)를 시작했고, 악성 흑색종 및 피부암 치료법 및 연구 책임자(Melanoma and Cutaneous Oncology Therapeutics and Research Director)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약 30여개의 임상시험에 저희 병원 총책임 연구자로 참여했습니다.

Inova가 University of Virginia와 학문적 제휴를 맺고 있어 부교수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의대 3-4학년 학생들이 가끔 외래 실습을 나오면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자체적으로 내과 레지던시 및 혈액종양내과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과 연구에 이바지할 기회들이 꽤 있습니다.

#### 4. Fairfax 동네 소개도 해주세요.

Fairfax는 수도인 워싱턴 디씨에서 서쪽으로 약 16마일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수도권이 라 오렌지선 전철로 워싱턴까지 연결됩니다. 2018년에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한국 드라마에서 Fairfax가 미국의 강남 8학군에 해당하는 동네로 소개되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지역은 미국에서도 잘 사는 곳에 속하면서 다양한 인종들, 그 중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한국계, 중국계, 인도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한국 교민들 뿐만 아니라 장·단기 연수나 과견 나오시는 한국 분들도 꽤 많기에 한국 식당과 가게들이 많아서 살기가 편리합니다.

#### 5. 미국에 온 후 성격이나 생활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는 약간 내성적인 성격인데, 미국에 와서 생활 패턴 상 조금 더 내성적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친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과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함께 어울릴 기회가 많았던 반면, 여기에서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중

에는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5시 정도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 다녀온 후 저희집 애들이 하는 활동이나 행사에 가는 등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지요.

미국은 생활도 병원 문화도 개인주의적인 면이 많은데, 저의 성격에는 오히려 잘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 6. 자녀가 셋인데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해볼까요.

아이들이 이제 5학년, 8학년, 11학년에 올라가는데, 아내의 헌신이 있었기에 세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퇴근하면 같이 놀아주려고 많이 애썼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오히려 제가 같이 놀아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가치관 교육이에요. 아이들 셋을 모두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잘 갖도록 하는게 우선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가 좋아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이웃들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7. 학창시절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의대에 입학할 당시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여러 동아리들을 탐색했어요. 트럼펫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음악반(orchestra) 문을 두드렸는데, 제 간이 음악반 사람들의 음주량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결국 술을 마시지 않는 CMF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주로 활동했지요. CMF 동아리에서 전국 수련회를 할 때 영상팀을 맡게 되어 본과 2학년 2학기에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영상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배웠던 기술로 본과 3학년 여름 방학때에는 한국 Habitat for Humanity에서 '한일 대학생 전국 자전거 일주 펀드레이징'할 때 따라가서 촬영한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출품도 했었어요. 아쉽게 혹은 당연히 떨어지긴 했지만요. 하하. 본과 4학년때에는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 전체 의료계와 의대생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진합니다.

#### 8. 미국 생활에서 힘들었던 때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

미국에 처음 와서 레지던트 시작했을 때 첫 로테이션이 하필이면 응급실이었어요. 한국에서 수련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것이 생소했어요. 나를 한국에서 영어 회화 연습도 하고 왔지만, 막상 미국 병원에서의 실전은 다르더군요. 특히 응급실 상황에서 전화로 얘기하고 알아듣기는 너무 어려웠고, 환자분들 중 억양이 센 발음은 알아듣기가 무척

곤란했어요. 그렇게 첫 인턴 6개월 정도가 가장 고달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지난 2년 여간 팬데믹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 때 기타와 트럼펫을 배우며 한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혼자만 있으니까 가끔씩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게 무척 즐겁더라고요.

#### 9.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실 계획인가요? 미국 내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올해 여름 휴가는 한국에서 보낼 계획이에요. 최근 한동안 한국에 가지 못해서요. 미국 내 여행했던 곳 중에는 2019년 여름에 했던 Alaska cruise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Jeneau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빙하에 올라가서 개설매를 봤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사진참고).



####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막내까지 대학 보내고 나면 어떤 삶을 그리는지요? 미국에서 수련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막내가 대학에 가려면 아직 7년이 남았는데, 아무래도 그 때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겠지요. 8년 뒤면 미국에서 트레이닝 끝나고 일한지 20년이 되는 해인데, 아무래도 중년의 고민-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은 첫 걸음을 들여놓기가 어렵지만 단 들어오고 나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대치를 낮춰서라도 일단 빨리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기회와 위기를 만나며 삶과 꿈을 일구어 갈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오늘도 이 땅에서 피워내는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22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장학생 선발 요강 공고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에서 2022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대 상 :** US Citizen, 영주권자에 한하며, 대상은 대학교 혹은 대학원생에 한함. 우수한 학업성적과 특기가 있는 동포자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임. (예년에 서울의대미주동창회의 장학생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됨)
- 모집인원 :** 10명 이하, 장학금: 각 \$2,500에서 \$3,000
- 구비서류 :** Application form(snucaaus.org website의 form에 있음), original transcript, personal statement, Letters of recommendation from school faculty(website에 있는 instruction 참조)
- 응모마감 :** by midnight EST(EDT) September 11, 2022. 발표: email을 통한 개별통보
- 접 수 :** 모든 필요서류를 PDF file로 변환 후, single package로 합본하여 email로 응모. (by mail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Email: snucmaa.scholarship@yahoo.com (All communication via email only)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장학위원회



코비드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그 중 하나는 우리의 자유스러운 만남의 제약일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코비드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게 마련이고 코비드는 아직 우리와 함께하고는 있지만 생활에 대한 제약은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스케줄이 한번 연기는 되었지만 결국 확정되어 Washington DC 근교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남가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회 날짜는 모터보트처럼 빨리 다가왔습니다. 여행 짐은 며칠 전에 이미 다 싸놓았고 대회 시작 날에 새벽같이 일어나 여독을 가리며 공항으로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 느낌이 없었겠으나 2년여 여행을 못했으니 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탑승한 후 생각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근교의 버지니아는 이상적인 기후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춥거나 덥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비도 적당히 옵니다. 물을 따로 안 주어도 잔디가 푸르다니 제가 사는 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는데 초호화 호텔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흠잡을 데는 없었고 직원도 친절하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접수할 곳, 정보 사

# 37차 학술대회 참가기

나 두 섭 (73, 남가주)

항 게시판, CME, non-CME 강의할 장소, 식사할 장소 등이 인접해 있어서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첫째 둘째 날은 non-CME가 있었고 둘째 셋째 날은 CME가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시작을 알리는 고기 입장

CME가 필수로 요구되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상대적으로 non-CME의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도 많았고 유머와 열성을 겸비한 강사들로 인하여 시간이 짧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의의 흥미를 돋우게 하는 것은 청중들의 관심인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보다 더 나은 청중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CME 연사로는 젊은 강사들이 많았는데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배울 의욕이 생기는 듯하였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감빠져가는 수가 많은데도 강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신기하게도 느껴졌

습니다. 특히 주제에 노화현상에 관한 것이 많았고 암에 관한 것이 많아서 자기의 관심사와 부합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강사의 지식과 열성이 크게 공헌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 식사때 젊은 강사들과 같이 자리한 때가 있었는데 그들의 청신하고 세련된 모습에 매료되었고 학술대회 참석한 덕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지 않았겠는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는 한정되어 있지만 남의 말을 들음으로 그들의 지혜도 나의 것이 되는 듯합니다.

학술대회는 배우는 것이 주 목적이겠지만 학술대회의 꽃은 저녁에 열리는 두 번의 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기 등장도 있었고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고가도 불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2년 동안 못 열렸던 관계로 못 치러진 시상식들도 있었고 본교에서 주는 시상 그리고 미주 동창회에서 주는 시상 등 여러 시상들이 있었고 시상하는 사람, 시상 받는 사람들의 느낌을 생각해 보며 저의 마음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말쑥한 모습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수수한 차림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인생에는 이런 화려한 순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의 테이블 세팅에서 한 번은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다른 한 번은 같은 졸업연도 순으로

세팅한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착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시상과 식사 후에 즐거운 여흥 순서도 있었고 사회자의 재치와 화려한 춤 솜씨로 그동안의 어려움을 날려보내는 듯하였습니다.

두 번째의 연회 전의 칵테일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은 서로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쳐만 가도 인연이었는데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인연 중의 인연일 것입니다. 졸업 후 49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는데 조금도 낯설지 않은 것을 보면 학연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후배 님들의 태도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이신데도 부부가 서로 도우며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창생들과 그 부인되시는 분들의 그룹 사진은 제가 찍어본 어느 사진보다도 멋있었습니다. 만날 때의 기쁨은 헤어짐으로 이어지지만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대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였을까를 생각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여기에 일일이 이름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데도 잘 협조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 점심 식사 제공도 참 좋은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친구의 부인되시는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잘 짜인 학술대회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저의 37차 학술대회의 총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37차 학술대회 화보 :

강의를 경청하는 동문들  
함춘공로상, 학장상 시상식,  
공로패 증정.  
개회선언 및 신입회장 인사,  
동기의 날 모임과 만찬  
여의사들의 모임 등.





3년 만에 열린 동창회 학술대회였다.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나도 내 나름의 기대와 우려가 있었다. 특히 그리운 몇몇 동문들이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임까? 마스크를 끼고도 운영이 될까? 3년 동안 달라진 동창회의 얼굴들과 상황들로 동창회의 연속성에 타격이 없을까? 등등... 그러나 이런 걸 다 뛰어넘는 나의 기대와 계획은 '쉬는' 것이었다. 올해(이미 반이 지나가 버린) 들고서 개인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를 소화할 틈도 없이 다른 하나가 일어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 정말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 밀린 휴식을 위한 절호의 찬스가 이번 3박 4일의 휴가였다. 더욱이 내가 할 발표도 없고 뚜렷한 진행 업무도 안 맡았으니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얼굴을 하고 금요일 첫 CME 세션에 내려갔다. 들으러 갔다가보다는 눈도장을 찍으려... 이때 내리간 일이, 3박 4일(골프까지 포함해서)의 나의 '쉬' 계획을 송두리째 앗아갈 줄이야! 그 후로 하루 반 동안 나는 CME 강의장에 불박이가 되어 앉아 있었고 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선배, 후배와 그 배우자를 많이 보았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여 내 계획을 팽개치고 잘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은 CME session에 앉아 있었는가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자.

우선 지난 번에 비해서 전체 세션이 짧아졌다. 이틀이나 이틀 반을 하던 것이 하루 반으로 줄어서 그동안 계획해 오던 주제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을 선정해야 했기 때문에 탁월한 주제가 남을 수 밖에 없었다. 금요일의 일반 세션의 주제는 Healthy Aging, 토요일 GP 세션의 주제는 Oncology/Neurology였다. Healthy

# 37차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서귀숙(84, 콜로라도 대학 방사선과)

Aging이라니, 이보다 더 시의적절하고 우리 동창회의 관심과 일치하며 사회 전반의 화두와 호응하는 것이 있었을까? 같은 맥락으로 oncology 분야도 그러하다. 짙어진 세션을 역이용해서 두 중심 과제를 공략한 것이 첫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주제만 좋다고 scientific session이 성공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 회원과 서울 또는 미국 타지에서 오신 연사들 모두 자기 분야의 연구 업적을 공유하면서 외부인(professional layperson?)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하였고, 동시에 전문적인 핵심 내용도 공개를 하여, 내용을 아는 사람들끼리 고개를 끄덕하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연출해 주었다. 원래 대가는 강의를 쉽게 한다고 하던가? Oncology 세션도 마찬가지였다. 개중에는 아주 전문적이어서 좁고 깊은 주제도 있었는데 왜 이런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과 연자의 철학이 저절로 와 닿아서, 우리가 알아서 듣고 있는 것이 이상한 약자나 sequence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

이번 발표 중에 약간 색다른 의미 있는 것이 있었다면 Dr. Richard Lee의 'Cancer Disparities: A Call to Action for Asian Americans'와 최예원 동문의 'Oncology industry career'였다. Dr. Lee는 풍부한 데이터와 경험으로 onco-

logy 의학 강의를 하면서 자못 의학 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의식을 일깨워주었다. 의학의 지평을 넓히고 좁히는 것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또 다른 연자의 강의에서 다룬 AI (Artificial Intelligence) 문제와 함께 우리 의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영역에 이미 성큼 들어서 있다는 느낌을 들게 했다. 최예원 동문의 industry career에 대한 소개는 아주 참신했다. 그야말로 좁은 물 안에서만 살던 대부분의 의사에게 주는 상쾌한 편지였고 그를 뒤따르는 후학에게 넓은 길/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귀한 보고였다. 그리고 연자로서 초대된 분 중에 우리 동문이 아니지만 관심을 공유하는 분들도 여럿 계셨는데 이렇게 열린 문이 닫히지 않았으면 한다. 이처럼 내용면에서의 다양함, 발표 팀 구성면에서의 다양성이 이번 학술대회의 또 다른 성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쯤 하면 내가 왜 쉬지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가슴이 채워진 느낌이었는지 이해를 하실 줄로 믿는다. 시간을 쪼개서 준비한 각 연자들, 온갖 서류 업무 때문에 시달리면서도 좋은 세션을 준비하고 이끌어 주신 신규호, 박종철 동문님들 (Scientific committee chairs)의 수고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동창회 학술대회가 다양성과 연속성을 추구하기로 한다

면 한두 가지 고려를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번에 한두 연제를 빼고는 한국어로 진행이 되었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국어와 영어로 발표할 때의 장단점을 이 자리에서 나열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술 언어로서의 장단점이 두 언어에 다 있다. 양쪽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본다. 또 하나는 이번처럼 발표의 내용이 아주 높은 수준인 것은 자랑스럽고 좋지만 이것이 동창회 학술대회 발표의 문턱을 높이는 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젊은 동문 중에는, 오늘 하고 있는 일이 NIH project 수준은 아니어도 내일 그렇게 될 사람은 많을 것이다. 이들의 seed grant 또는 첫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장을 우리가 제공한다면 그들에게는 편안하게 feedback을 받는 자리가 되고, 선배 동문들에게는 후배들의 성장을 증거하는 현장에 있는 짜릿함을 제공할 것이다.



내가 학술대회에 오기 전에 우려했던 것들은 대부분 'Yes and No'로 판명되었다. 그래도 학술대회는 진행되었고 예년보다 적은 인원의 참가 (knowingly) 였지만 내가 보기로는 큰 성공이었다. 다시 말해 나의 우려는 우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irrelevant 한 것들에 불몰려서 relevant 한 것들을 돌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또다시 배웠다.





# 지난 여름 갑자기

정 유 석(64, 북가주)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지난 여름 갑자기' (Suddenly Last Summer)에서 세바스찬이란 부잣집 아들은 40세가 되도록 매년 시 한 편을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하는 일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인생을 즐긴다. 그의 어머니 베너를 부인은 항상 그와 단적으로 여행에 동행하면서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몰심양면으로 돕는다.

지난 여름 갑자기, 그녀는 뇌졸중에 걸려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세바스찬은 그의 사촌 여동생 캐서린에게 같이 여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여행에서 세바스찬은 한 해변도시에서 젊은 거지 아이들과 남색을 탐하다가 그들에 몰려 죽임을 당한다. 그들은 세바스찬의 몸뚱이를 뜯어먹는 잔인한 식육 행위마저 자행한다.

이렇게 무서운 현장을 목격한 캐서린은 그 충격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만 반복해서 떠오르는 기억을 악몽처럼 잊지 못한다.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이것을 기억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 경험하는 현상을 보면 캐서린의 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였을 것이다.

연극에서 베너를 부인은 정신과 의사에게 그 당시 정신병 치료방법으로 새로 개발된 '전두엽 절제술(Frontal Lobotomy)'를 시행하여 자기의 행복을 아가간 캐서린에게서 아들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제거해버리라고 요구한다. 아들의 이름으로 재단을 세워 전두엽 절제술 연구를 돕는다는 조건으로.

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에게는 바로 위에 로즈라는 누나가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매우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의 출세작이라고 할 '유리 동물원'의 주인공 로라는 누나인 로즈를 모델로 삼았다.

그녀는 40년대에 정신분열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당시에 바로 각광을 받았던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후에 폐인이 되어 일생을 정신병원에서 살았다. 테네시 윌리엄스는 극작가로 명성을 얻게 되자 우선 누나의 정신병 치료를 위해 1천만 불의 기탁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누나가 경험한 전두엽 절제술에 대한 실망을 이 작품에서 소재로 취급한 것이다.

전두엽 절제술은 1935년 포르투갈의 신경과 의사인 에가스 모니즈 박사가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는 이 수술 이전에도 포르투갈의 외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까지 한 저명인사였다.

그는 두뇌 중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이 모든 정신병의 소굴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이곳을 나머지 뇌와 절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그런 이론은 단지 두 마리의 침팬지에서 전두엽을 제거했더니 행동이 유순해졌다는 미국 예일 대학에서 나온 실험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는 이 공로로 인해 1949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다. (의학적 업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배려였다.)

이 수술을 시행하면 흥분하고 발광하는 정신병자들을 조용하게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전두엽이 사고의 큰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현저하게 지능 저하의 부작용을 보였고 간질 발작도 생겼다.

하여간 정신병원에 환자들은 밀려들어 오고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던 40년대와 50년대에 이 수술이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널리 실시되었다. 수술 대상은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성격장애 그리고 난폭한 환자 등 광범위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60년대에는 정신병 치료방법에서 퇴출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누나 로즈메리도 전두엽 절제술의 희생자였다. 케네디가의 4남 5녀 중 장녀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약간의 정신박약 증세가 있었다 그러나 그 증세가 경미했기 때문에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명량한 성격을 유지한 채 성장했다. 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영국대사였을 때 영국 국왕의 즉위식에도 초대되어 미모를 떨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세가 넘어도 정신박약 증세에서 회복되지 않자 아버지는 그녀의 나이 23세인 1943년에 전두엽 절제술을 받게 했다. 어머니 로즈 여사의 반대를 우려해서 그녀가 한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해치운 것이다.

수술은 실패로 끝났다. 정신박약 증세가 심해져서 그 후 로즈메리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신체 왼쪽 부위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 다.

20년이 지나 수술의 비밀을 알게 된 로즈 여사는 남편이 1969년 사망할 때까지 말을 폐인으로 만든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

로즈메리는 위스컨신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세인의 관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수십 년이 지나 2005년 거기서 사망했다는 짧은 소식이 들려왔을 뿐이다.

나의 아주 작은 마당에 장미나무 가지 사이에서 장미잎으로 살짝 가려진 새 둥지를 발견한다.

Humming Bird의 집이다.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의 삼각형의 정점에 깃털과 마른 풀, 잔 나뭇가지로 둘러진 새집. 그 안에 아주 작은 두 개의 연푸른 새알이 있었다.

"어떻게 튼튼하고 멋있는 집을 지었을까?"



4월 18일: 어미 새가 알을 품었다.

'나는 집 짓는 것도 못 보았는데 이렇게 포근한 집을 지었니?'

4월 19일: 손녀의 100일 축하로 달라스에 가서 일주일 지내다 왔다.

4월 28일: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새집을 들여다본다. 어미 새는 알을 품고 또 품고 정성이 지극하다.

"꿀물 먹었니?"

에미 너는 점심 안먹어?"

외출 후 돌아온 어미 새는 날갯짓을 크게 하며 푸드득 소리를 내고 작은 가지에 앉았다.

'알았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어미 새는 왼쪽으로 푸드득, 오른쪽으로 푸드득하고 큰소리를 내고 나르며 안전을 확인한 후에 둥지에 들어가 깊이 앉아 머리만 보인다.

어미 새는 알들을 품고 또 품고 또 품는다.

며칠 후 어미 새는 자기 몸의 두배나 되는 긴 새털을 가져온다. 화씨 97-98.6 온도를 유지해야 알에서 깨어 나올 수 있다.

하루 늦게 난 알까지 깨어나려면 두 주 시간이 필요하다. 비 오는 날은 외출도 없이 하루 종일 꼼작 안 하고 알들을 품고 있다.

5월 6일: 드디어 두 알속에서 첫 새끼가 깨어났다.

어미는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있다.

하루 뒤 동생도 알에서 깨어났다.

가는 바늘 같은 털이 덮인 아기 새들.

5월 12일: 주황색 주둥이 하나가 서 있다. 둘째는 털만 보인다.

돌아온 어미 새가 먹이를 한순간에 아기 새 입에 넣는다.



5월 13일: 두 개의 주황색 뾰족한 입이 나란히 하늘을 보고 있다.

어미 새가 열심히 품고 있다. 아기 새들 먹고는 똥을 똥어낸다. 둥지 주위로 까만 똥이 쌓이고, 장미 잎에도 벽에도 똥이 떨어져 있다.

'어미가 잘 먹이고 있구나.'

5월 19일: 아기 새들이 눈을 떴다. 참새보다 큰 새가 나의 마당으로 들어와 이리저리 날아돌아다닌다.

'이놈! 어디를 어슬렁 어슬렁, 요놈! 워어이' 그 새를 쫓아버린다.

안개 비 내리는 날에도 어미 새는 날개를 꼭꼭 붙이고 새끼들을 품고 앉아 있다.

어미 새의 긴 외출에도 열심히 기다리고 기다리며 아기 새들은 '엄마 빨라 와! 배고파 엄마!' 하는 것 같다.



5월 22일: 아기 새들이 입을 벌리고 어미를 기다린다.

어미 새가 둥지 끝에 앉아 초속으로 먹이를 형에게 먹인다. 초속으로 동생도 먹

이고 어미 새 날아간다.

몸집이 큰 형님이 움직이면 동생은 같이 동지를 돈다.

형님 몸이 밖으로 나오고 눈이 초롱하다. 아기 새의 몸뚱도 윤기가 흐른다.

어미의 긴 외출.

'엄마 도망갔니?' 하고 아기 새들에게 묻는다.

어미가 긴 시간 동안 안 돌아온다.

들이대는 나의 카메라도 자기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같다.

5월 24일: 아기 새들이 주둥이로 가슴도 쪼아 보고 날개도 쪼아보고 활동이 활발하다.

아기 새들이 점점 몸을 가다듬고는 푸득 푸득 움직인다. 형님부터 시작이다.

동생도 몸 다듬기를 한다.

점점 어미를 닮아가고 있다.



5월 27일: 아침 일찍 아기 새들이 둥지에서 빠져 나와 몸을 높이 하고 앉아있다.

8:00, 어미 새가 오고, 초를 다투는 속도로 먹인다. 그 후 두 번 더 어미 새가 왔다. 눈 깜박할 사이 먹이를 먹고 날아간다.

11:00, 두 아기 새들이 둥지 끝에 앉아 목과 날개를 쪼아보고 날갯짓도 해본다. 새들의 몸단장이 대단하다.

11:40, 어미 새는 나의 마당에 있는 이 꽃 저 꽃에서 꿀을 빨고 새끼들에게 초고속으로 먹인다.

아기 새들의 날갯짓이 더욱 활발히 하다. 자꾸 날갯짓을 한다. 자꾸자꾸 한다. 그리고 나서 형제는 둥지 끝에 앉아 쉰다.

12:00시, 어미 새가 또 왔다.

초고속으로 먹인 후 날아가고.

형, 동생 아기 새들은 목과 날개를 쪼

고 날갯짓에 바쁘다.

Hummingbird는 어떤 새도 없는 기능을 갖고 있다. 헬리콥터 같은 성능으로 상하 전후좌우로 나는데 다른 어떤 새도 뒤로는 날지 못한다. 혼자서 한 번에 500마일을 나르는 철새이다.

'아하! 알겠다.'

어미 새가 초고속으로 먹이는 고단백 벌레 먹이, 그래서 머리, 목과 날개의 앞을 그렇게 많이 쪼았구나!

'그렇구나. 멀리 캐나다, 혹은 멕시코로 날아가려면 그런 먹이를 먹어야지... 자연의 순리는 그렇구나.'

1:00, 일하다 둥지를 보니 동생만 남아 있다.

'형은 날아갔니?'

동생은 앞도 쪼아보고 위를 보며 앉아 있다.

1:20, 다시 정원 일을 하다 보니 빈 둥지이다.



푸드득 동생이 날아오르고... 잠깐 사이 쇠 꽃 받침대에 앉아서 쉰다. 또 한 번의 시도 후 비상.

더 높이 날아 오른다. 높이 지붕 위로 나른다.

'너도 날랐어! 박수! 아 아아...'

그리고 형제 아기 새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동생 아기 새도 날아간 빈 둥지가 되었다.

약 5주간의 어미 새의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도 초롱 초롱한 아기 새들의 눈망울이 보이는 것 같다.



동생 아기 새의 비상!

Bravo!

이건일(68) 동문 부인





# 그게 왜 거기서 나와

서 량(69, 대뉴욕)

## 시샘, 우리들의 어두운 본성

-도공은 도공과 원한을 맺고, 공예사는 공예사를, 거지는 거지를, 시인은 시인을 시샘한다. - 헤시오도스 (Hesiod: 기원전 8세기)

맞는 말이다. 내가 빌 게이츠를 시샘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정신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 경쟁의식을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조지가 땡강을 부린다. 전날 롤랜드가 극심한 난동을 피웠던 일이 부러웠다고 말한다. 여럿이 뛰어와서 떠들어대고 주사를 놓는 병동 직원들의 관심을 저도 받고 싶다는 것. 조지와 롤랜드는 썩 좋은 사이가 아니다. 간간 서로 트집을 잡고 주먹다짐도 한다. 그들의 불행은 시기와 질투에서 출발한다.

신데렐라의 계모와 의붓자매는 차갑고 모질고 악질적이다. 콩쥐팥쥐의 팥쥐도 저질의 극이다. 유교의 칠거지악(七去之惡), 카톨릭의 '7개 대죄, Seven Deadly Sins'에서도 질투와 시샘이 두각을 나타낸다.

아담과 이브의 아들, 카인과 아벨은 어 떤했는가. 야훼께서 곡식을 예물로 바친 카인보다 양 떼 가운데서도 '말배의 기름기'를 골라 바친 아벨의 예물을 더 받기



셨다는 기록은 불가사의한 데가 있다. 카인은 질투에 몸을 떨며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때려죽인다.

시샘 당하는 일은 공격 받는 일이다. 겸손의 미덕은 시기의 표적을 피하기 위함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든 수상자들이 나열하는 'Thank you!'의 연발은 자신의 공을 남의 은덕으로 대치하는 작업이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 받는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환희가 넘쳐흐르고 질투 어린 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타이틀로 번역된 Robert Greene (1953~)의 저서, 'The Laws of Human Nature' (2018)를 탐독한다. 저자 그린은 인간의 본성 중 나르시시즘을 위시한 여러 어두운 면을 가차없이 파헤친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허술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남들의 관심사가 되고 싶다. SNS에 웃고 있는 프로필 사진, 다듬어진 글, 경치, 꽃, 명화, 좋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보라. 당신도 나도 부지부식간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가.

로버트 그린은 우리가 시샘으로 괴로울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보다 안 잘난 사람을 생각하며 위안을 받는 디펜스가 통할 때가 많다. 남의 우수성을 본보기로

삼아 자기를 발전시키고 승화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도 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접근하는 기법도 유효하다. 부러운 여건과 상황은 그의 일부분일 뿐, 잘 보면 그가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측은지심이 솟고 모종의 공감(empathy)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샘이 사라진다.

오래 전에 'envy'가 'envision'과 말의 뿌리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제 그와 달리 'envy'가 'in'과 'vie, 경쟁하다'가 합쳐진 단어라는 생각이 굳어진다. 'vie'는 16세기경 노름에서 상대방에게 도전한다는 뜻이었고 이 말은 또 'invite, 초대하다'와 같은 어원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초대는 응당 도전의식을 겸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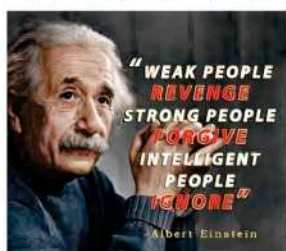
스포츠맨 정신은 건전한 도전과 다름이다. 시기심은 동종(同種) 경기에서만 발생한다. 정치인은 권투 선수를 시샘하지 않고 정치가를 시기한다. 국가는 국가를, 종교는 종교를 선망하고 질투한다. 저급한 이념이 월등한 이념을 음모 양으로 물어뜯는다.

## 아인슈타인을 공부하는 라일리

"Weak people revenge. Strong people forgive. Intellectual people ignore: 약자(弱者)는 복수한다. 강자(强者)는 용서한다. 지자(知者)는 간과한다."

- 아인슈타인

라일리는 걸핏하면 다른 환자와 싸우고 기물 파손을 일삼는 극심한 성격장애 때문에 내 병동에 오래 머문다. 불철주야로 병동 직원들을 괴롭히는 데 이골이 난 30대 백인 청년. 주름진 아인슈타인 얼굴이 들어간 배경에 이 짧은 세 개의 문장이 돋보이는 인터넷 파일을 프린트해서 그에게 주며 벽에 붙여 놓고 뜻을 되새기라고 타이른다. 그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대답한다.

걱정이나 짜증거리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비를 걸고 주먹다

짐을 하는 등, 꼭 남을 기분 나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라일리. 자기의 불쾌한 정신상태가 늘 남이 저지른 만행의 결과라는 믿음과 함께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남을 처벌하고 복수하는 스틸 만점의 삶을 산다. 남들의 악행을 척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악행을 저지른다. 사태의 자초지종에 대하여 새빨간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라일리.

아인슈타인이 사람을 양분하지 않고 셋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재미있다. 자칫, 정신적 계급제도를 주창하는 착각이 들까 염려스럽지.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사람 마음이 요지부동의 구조물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변형, 변질되는 덧없는 유기체, 생물현상이라는 사실을. 물

론 아인슈타인은 지적인 사람을 선호한다. 어찌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나.

마음의 상처라는 항목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일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라일리는 말한다. 복수, 앙갚음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나는 그의 말을 들은 척만 척하기로 작심한다. 내가 그보다 더 지적인 사람이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 'ignore, 무시하다'는 형용사 'ignorant, 무지하다'와 말뿌리가 같으면서 14세기 불어와 라틴어에서 'unaware,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일부러 '모르는 척하다'는 의도적인 요소가 덧붙여진 단어가 됐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강그리 무시하는 것은 크고 작은 불화의 씨가 되지만 타인의 의도를 짐짓 모르는 척하는 것은 일종의 예의 또는 배려일 수도 있고 저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책이기도 하다. 길거리 강패들을 꼬나보았다가, '왜 짜려?' 하는 시비가 붙는 일이 비일비재한 인간의 본성을 유념하거라, 라일리아. 제발 못 본 척해라!

그에게 대충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아무리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이해한다고 떠들어대지만 남들을 종일토록 살금살금 쫓아 다니며 시비를 걸고 말성을 일으키지 않느냐 말이다. 직원이면 다른 환자인 건 상관없이. 네가 남들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에게 너를 향하여 무반응을 보이라는 지시를 내리겠다."

한 두 시간쯤 후에 라일리가 한 직원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건다. 직원이 라일리 면전에 대고 "I am ignoring you as the doctor asked me to! - 나는 의사가 시킨 대로 너를 무시한다!"라고 소리쳐 말한다.

그 결과로 라일리는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 난리블루스를 친다. 직원이 그를 무시하는 데 완전 실패한 채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 결과다. 그는 지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는 즐거움을 한 번 더 톡톡히 누리 셈이고.

##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지 2년 반에 접어들 2022년 6월 끝자락. 아직 외식을 하기가 좀 불안한 세상이다.

군대 시절. 장교와 사병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야 해서 위생병들과 한 자리에서 밥을 안 먹던 기억이 난다. 남녀가 가까워지려고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풍습과 정 반대 경우. 장교와 사병이 친근해지면 위계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의사는 자기 가족을 다른 동료의사에게 일임한다. 아들환자가 아버지의사 말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의사는 자칫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이유에서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 '친숙은 경멸의 근본'. '가까워지면 무례해 진다'는 격언. 우리 속담 '오나 오나 했더니 할애비 상투를 틀어잡는다'와 같은 사연이다.

정신질환자와 의사 사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거리낌없는 사이에서는 심리치료가 불가능하다. 의사는 환자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때가 많다. 의사들이 일반인보다 2배 정도 자살율이 높은

데,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6배나 더 높다는 미국 통계를 얼마 전에 읽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각양각색의 정신 질환 영혼 바이러스에 거둬 침범 당한 결과는 아닐지.

우리는 친숙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방문하고, 친절한 사람에게 끌리는 속성을 지닌다. 사내들은 '불알친구'를 만나서 쌍소리를 나누며 즐거워한다.

2008년에 '불알'의 어원이 불(火)과 알(卵)이 합쳐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고려대 김민수(1926~2018) 교수 編 '우리말 어원사전'(1997)에 근거를 둔 주장이었다. 이제 학설을 바꿀까 한다. '불'이 'fire'가 아니라 순수 우리말 '불룩, 불뚝, 불쑥, 불끈'의 '불'이라는 각성이 싹튼다. 다음과 같은 사전 해석과 괄호 속 예문들로 당신 눈이 반짝하기를 바란다.

불룩: 물체의 거죽이 크게 두드러지거나 속 내밀려 있는 (배가 불룩하다)/ 불뚝: 갑자기 솟아오르는 (불뚝 선 산봉우리)/ 불쑥: 불룩하게 속 나오거나 내밀어진 (불쑥한 주머니)/ 불끈: 물체 따위가 두드러지게 자주 치밀거나 솟아오르거나 떠오르는 (힘이 불끈불끈 솟다) 불룩, 발끈 같은 축소어도 있다.

불알은 순수 우리말. 불룩, 불뚝 서기를 잘하고, 불쑥대고 불끈거리리는 음경(陰莖)의 씨앗, '고환(睾丸)'을 뜻한다. 의태어(擬態語)다. '불두덩'도 불타는 두덩이 아니라 불룩 나온 두덩을 일컫는다.

음경을 비속어로 좆이라 한다. 경희대 어원학자 서정범(1926~2009) 교수에 의하면 좆은 씨(種)를 뜻하는 조어(祖語) '똥'에서 유래해서 디글이 지웃으로 구개음화 과정을 겪었다 한다. 똥: ①해나 달 따위가 솟아 오르다 ②입맛이 당기다 ③속에 생긴 것이 걸으로 나오거나 나타나다. '나오거나 나타나다' 부분에 각별히 집중하시라. 나서고 내대면서 설쳐대는 남근을 상상하면서.

비속어 '좆라'는 '존나'에서 유래했다. '좆이 나오게' (흥분스럽게, 심하게)에서 두 글자만 따온 '좆나'가 '좆라'로 변한 것이다. '나온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자세다.



'영탁'의 노래 중 구성지고 친숙한 뽕 짝,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당신에게 소개한다. 사랑하는 남녀의 수상한 정황을 연상시키는 가사가 흥미롭다. 흥난과 작곡, 윤석중 작사 '달맞이'가 떠오른다.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다 입에 물고 목에다 걸고 ♪~♪~"

-- 이 글은 지난 6월 24일, 37차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 Non-CME Program 중 본인의 강의 불경스러운 말들에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

(이 세 편의 수필은 근래에 뉴욕중앙일보 칼럼, '잠망경'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 편집자)

## 시계탐 7월호 편집회 소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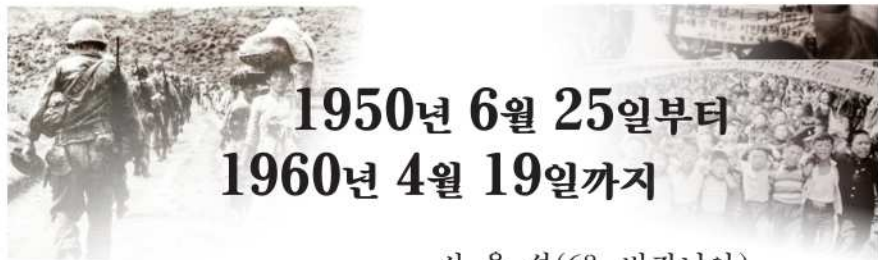


장소; Zoom Link로 열림 시간; 2022년 7월 9일 동부시간 오후 1시  
참가자; 허선행, 서윤석, 서량, 서귀숙, 박은경, 제이미 김 사무장, 황창근 사장  
어려움 속에서 3년 만에 37차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 밀렸던 인사를 나누었다. 멀리 Colorado, Iowa, New Jersey, New York, Virginia에서 이렇게 떨어져서도 함께 모일 수 있었다.

지난 3개월간과 특히 학회 후에 들어온 각종 원고를 정리했다. 또한 COVID-19 때문에 수여 절차가 지연되었던 3년에 걸쳐 모여진 12명의 수상자들에 대한 기사를 정리했다. 또 이번 학회 참가기에 나두섭(전체), 서귀숙(주로 CME), 신용계(골프 주관) 세 동문의 글을 실는다. 7월호 제1면에는 관례대로 신,구회장의 인사말을 실는 것으로 한다. 허선행 편집위원의 합춘미주공로상 수상을 축하했으며 이분은 수상금 전액을 시계탐 발행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한다. 설명하면 3년간 9명이 합춘 미주공로상, 3명이 학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나두섭 위원이 찍은 학술대회 사진들이 약 2면에 걸쳐서 들어갈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지만 이번에도 7월호 시계탐이 충분한 원고로 무난히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편집회는 10월 8일(토요일)이 될 것이다. 박은경 위원은 Iowa에서 유타주로 이동할 확율이 높다고 한다. 혹시 그곳에 사는 동문이 있는지 문의했다. 기념촬영 후 회의를 마쳤다. - 글: 편집장 서윤석





# 1950년 6월 25일부터 1960년 4월 19일까지

서윤석(68, 버지니아)

**5장**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하여 이 대통령이 방문하고 통일이 가까워 왔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전세는 변했다. 북진을 서두르던 유엔군은 좌절감에 빠졌다. 맥아더의 주장대로 만주에 원자탄을 터트렸다면 상황이 달라졌는지도 모르나 처음에 중공군의 개입을 모르고 방심하던 유엔군이 밀리기 시작했다. 서울이 다시 적의 수중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많은 피난민들이 멀리멀리 남쪽으로 떠났다. 우리도 보따리를 다시 싸고 새벽에 영등포 기차역으로 나왔다. 이것이 1951년 1월 4일이다. 우리도 또 남쪽으로 가는 피난길을 결심했다. 영등포역에 도착한 우리는 화물칸에 뚜껑도 없었지만 자리를 잡았다. 우당탕우당탕하면서 긴 기차 줄이 이어지고 피난민들을 태웠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혼이 난 사람일수록 이번에는 아주 멀리들 갔다. 대구, 부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간 사람들도 많았다. 기차가 지나가면서 설 때마다 또 피난민들이 올라탔다. 대전을 지나서 추풍령 고개를 넘어서 남쪽으로 기차는 달렸다. 굴을 지날 때마다 눈을 감았다. 굴이 지나고 나서 눈을 뜨면 얼굴이 뿌연 색이 되고 눈알만 말뚱말뚱했다. 석탄재가 눈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아팠다. 객차 꼭대기에도 사람들이 매달렸다. 굴을 지났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졸다가 갓난애를 떨어뜨렸다고 하며 울었다. 얼마나 졸렸으면 그랬을까? 기차가 드디어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내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구 피난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6장** 대구시 봉덕동 방 한 칸을 얻었다 부엌이 따로 없지만 밖에서 식사 준비를 해도 가지고 간 짐을 방구석에 쌓아놓았다. 밤에는 한 사람은 집 위에서 잤다. 아버지가 그 아래 주무시다가 잠결에 형이 배 위에 떨어진 적도 있었다. 누나는 학질을 앓았고 4살짜리 어린 동생은 밤이면 눈이 안 보였다. 비타민 A 부족으로 생긴 야맹증이였다. 아버지가 보초를 서는 미군이 주는 강통에 든 소고기 통조림을 얻어와서 먹이니 다음날 그 야맹증이 없어졌다. 집주인 아저씨는 사교적인 사람인데 희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서 그가 산 뒤쪽에서 살았다고 증언했다. 후일 그에게 원자병이 생기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때가 원폭 투하 5년 후인데 그때까지는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밤이면 밖에 나와서 모깃불을 피워놓고 아버지와 같이 시국을 논의했다. 그는 형수님과 같이 살았는데 그 내막은 잘 모르겠다.

동네에 놀러나가면 “서울내기 다마네 기 맛 좋은 고래고기”라고 하며 아이들이 피난민을 놀려댔다. 그래도 학교가 시작됐다. 학교 건물은 다 군과 정부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개천가에서 자갈을 모아놓고 칠판을 하나씩 세워놓고 공부했다. 산수는 구구단을 배우는 때였다. 2X2=4, ...9X9=81 하면서 암송을 해야 되는 어느 날이었다. 나는 이날 그동안 신고 다니던 신발이 다 달아서 맨발로 학교에 갔다. 겨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나에게 구구단을 다 외울 때까지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구구단을 결국 다 끝내고 외우면서 왔다. 맨발로 서서 다 외웠다. 이 어찌 착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몇 주후 나막신을 부모님이 사주어서 신게 되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모두들 모여서 노래를 불렀다. 잘하는 학생에게는 독창

을 시켰다. 머리를 딴 예쁜 여학생이 ‘오빠 생각’을 노래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어린이는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래는 참 잘 불렀다. 늘 같이 다니던 동무가 있었는데 충청남도 서산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두부공장을 했다. 그 집에 들러서 서로 이야기도 재미있게 했는데, 그 친구는 바다로부터 산 물고기들이 걸어서 동네로 올라온다고 신나게 자랑을 했다. 서산 해변가가 그의 고향이라고 했다.

아궁이에 불을 땀 땀감이 필요하여 어머니와 누나는 봉덕동 동남쪽 산모퉁이를 만나질 가서 개천을 건너 산에서 나무를 해왔다. 나는 어느 날 집을 지키면서 심심해서 아궁이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발각이 났다. 이에 대한 벌로 다음날 어머니와 누나와 같이 나무를 하러 갔다. 작은 나뭇짐을 등에 메고 왔다. 그러나 그날 나는 오히려 아주 재미가 있었다. 등산을 하고 점심도 산에서 먹었으니 좋은 하이킹을 한 추억으로 남는다.

나무를 소달구지에 싣고 와서 시내에서 팔고 가는 농부들이 지나갔다. 나는 다른 애들처럼 그들을 향하여 “스름매 사이소” 하며 많은 오징어를 팔았다. 비교적 나는 판매 성적이 좋았다. 이때 나는 달구지를 끌고 가는 황소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몇 년 후 경기중학교 입학 시험에 황소 머리를 정면에서 그리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미군 트럭들이 줄을 지어 네거리를 지나가는데 커브를 도는 네거리에서 운전병들이 길 한가운데에 오면 손과 팔을 일정하게 돌리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운전병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었다. 동네에 미군부대에서 일한다는 틴에이지 소년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빠기면서 지나갔다. (해는 저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런 유행가를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오무락거리며 불면서 미군부대 쪽으로 올라갔다. 나중에 나도 저런 하모니카를 사야겠다고 부러워했다. 이때 사촌형 한 분이 전투경찰로 지리산으로 갔는데 그 형수님이 한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우리와 같이 있었다. 이 조카가 아침식사 때면 꼭 대변을 보아서 웃었다. 제일 기억나는 것은 외삼촌이 서울에서 국민방위군에 끌려서 나가서 고생을 하다가 부정축재한 지휘관이 사형당하고 방위군이 해산되어 돌아오는 길에서 우연히 그 전투경찰 사촌형을 만나서 우리 주소를 알려주어서 찾아온 것이었다. 병약한 몸으로 왔는데도 손에는 두부를 한 모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쓰러져서 삼 일을 앓다가 회복해서 서울로 돌아갔다. 외삼촌은 해방 직전에는 일본 징용에도 나갔다가 남방(필리핀)에서 용케 살아온 분인데 또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이다. 전세가 철의 삼각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밀고 밀려서 지금의 휴전선에서 안정이 되고 있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다. 1953년 봄 우리는 아버지의 사업체가 있는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7장** 대전으로 와서 나는 4학년에 들어갔다. 원동 국민학교는 번잡한 시장 한가운데 있었다. 우리 집은 부사동 문묘산 밑에 초가집이었다. 등교 시에는 먼 벌판을 지나야만 했다. 한발의 기적이 일어난 70년 후인 지금은 빌딩으로 차있는 변화한 도심지이지만 그때는 넓은 논과 밭이 있었다. 그리고 소, 마차가 지날 수 있는 좁은 흙길이 있었을 뿐이다. 겨울에 등갓길에 칼바람이 불면 너무도 춥고 손과 얼

굴이 시렸다. 그래도 나는 학교에 개근했다. 형들과 누나도 피난민을 위하여 종합 중고등학교가 생겨서 본교가 서울에서 다시 열릴 때까지 한 군데서 교육을 받았다. 그해 휴전 협정이 있기 바로 전이다. 반공포로 석방으로선 사촌 형이 석방되자 우리 집으로 왔다. 사변 전에 그는 보성고등학교 수학선생이었는데 수용소에서 받은 한글 판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가지고 왔다. 그는 몇 달간 나와 한 방을 쓰면서 이집트의 스피크스, 피라미드 등등 서양문명, 산수문제를 특히 달력을 손마디에 기억해두는 방법들을 가르쳐주었다. 달력을 외운다고 학교에서는 나를 신동으로 알았다. 그는 들어가기 힘든 일본 동경문리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얼마 안 남기고 해방을 맞았던 것이다. 사변이 터지자 서울에서 의용군에 끌려갔다가 낙동강 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온 것이다. 피난을 나온 형수와 아들은 부산에 있고 몇 달 후 안정이 되고 휴전이 되자 형은 그 학교로 복직했다.

나는 <새 공부>라는 종합 참고서를 사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아주 좋았다. 6학년 때 이래평 담임선생님은 총각이었는데 같은 학교의 멧쟁이 여선생과 연애 중이라 가끔 수업 시간에도 창문을 두드리면서 속닥거렸다. 이 분은 나에게 공부만 하지 말고 철봉대 앞에서 운동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좋은 선생님이시다. 교장 선생님은 콧수염을 기르신 심재갑 선생님이였다. 키가 큰 친구 한 명이 여름 방학이 지난 어느 날 한 쪽 팔이 없어져서 나타났다. 수류탄을 분해하면서 놀다가 폭발사고를 당한 것이다. 장창군이 라는 급우가 있었는데 잡지 ‘학원’에서 나오는 테무진, 칭기스칸 이야기를 휴식시간이면 아이들을 동그렇게 모아놓고 큰 소리로 읽었다. 우리는 매달 그 잡지가 나오는 날을 기다렸다. 테무진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던 그 대목에서는 우리 같이 다 슬퍼했다. 장창군은 대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후일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내가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통일호 열차에서 만났었는데 <다음면에>



## Happy Father's Day

June 19th, 2022

Seo, Youn Seok

After the Coop Bookstore in Harvard square  
Beautiful, challenging 122nd US Open golf course  
At Brookline Country Club  
In the city of Boston  
I am one of the hundred thousand  
Old, young, white, brown, and black  
And a big family of wild turkey  
All are free  
Clean air  
Soft rain and mild wind  
The loud applause  
And cheering for good shots!  
Here is our earth  
Here is our nation  
Here are our people on one planet  
Same warm heart  
Loving sports  
Loving cheese steak burger  
Loving Coke  
Loving competition  
Loving peace  
Forever

## 행복 幸福한 아버지날

2022년 6월 19일

하버드 대학 앞 네거리 쿠푸움Coop 책방을 지나  
122회 미국 US Open 골프대회가 한창인  
보스톤의 브룩크라인Brookline 컨트리클럽에서  
아름답고 힘든 장관壯觀에 취하여  
나도 수만명의 군중 속에 하나가 되다  
어른, 아이, 젊은이, 늙은이  
백인, 흑인, 동양인  
그리고 야생 칠면조 가족도  
모두 다 자유롭구나  
오, 맑고 시원한 공기  
보드라운 빗방울, 스치는 바람  
“굿 샷!”하며 외치는 함성과 우렁찬 박수소리  
이곳은 지구촌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우주 속의 한 행성行星에 같이 사는  
똑같은 뜨거운 심장이 뛰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치즈-스테이크버거Cheese-steak Burger,  
시원한 콜라도 즐기는 우리  
당당한 운동 경기를  
평화를 사랑하는  
소중한 꿈 영원永遠하라

-서윤석 동문은 미주 운동주 문학상 특별상, 미주시학 배정웅 문학상 특별상에 이어 지난 5월 제8회 팔봉문학상을 수상했다.







# 준원 이광수의 **흥**을 읽고

문성길 (70, 남가주)

이미 중년의 어른이 된 아이들 고교생 때 선물로 사주었던 Turn table을, CD 등장으로 LP로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어짐에 그들로부터 돌려받은 두 개 중 하나는 이미 고장 났고 큰 보물인 양 애지중지하던 그나마 작동하던 하나마저 어찌 된 영문인지 작동이 아니되어 백방 수소문 끝에 80여 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는 수리점을 발견했다. 하나 기쁨도 잠시, 사는 것과 수리비가 거의 맞먹을 테니 오히려 중고품을 사는 것이 어떨겠냐고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언을 주어 여간 낙담이 아니었다. 해서 다른 묘수를 생각한 것이, 음악은 CD나 I-pod로 듣고 대신 책을 읽으며 소일하기로 해서 첫 번째 손에 잡힌 책이 이광수 대표 문학선집 중 장편소설 '흥'이다.

준원이 동아일보 편집국장 시절 1932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91회 연재한 장편소설, 그 당시 농촌계몽, 러시아어로 "브나로드(군중 속으로)"라는 운동을 동아일보가 몇 년간 주도했을 때 이 소설이 그의 운동 중 일각으로 쓰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야기책은 역시 이야기책, 작가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선 우선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남녀 간에 사랑, 특히 삼각관계 설정으로 조마조마 때론 분노와 연민 등을 유발시킴이 필수, 민족주의자, 사회 지도자 한민교, 이상주의자며 농촌계몽운동가 허송, 반대되는 향락, 퇴폐주의자인

김갑진, 이견영 등과 자연히 엮어지는 여인들의 사랑으로 인한 눈물과 회한, 배신, 회개의 윤정선, 유순, 심순례 기타 인물들을 등장시킨다.

시골 출신으로 윤 참판 댁 가정교사로 있던 허송의 건실함을 눈여겨 본 윤 참판이 외동아들이 일찍 죽자 하나뿐인 외동딸과 결혼을 시킨다(이때는 허송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입격, 변호사 자격이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현대 같으면 아무리 부모라고해도 서로 간 무엇이 좀 통하고 맞아야(소위 '케미칼') 성사가 되겠지만 그 당시는 부모가 정해주면--, 딸 윤정선의 눈 높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골 학생 허송도 고향 '살여울'을 떠나올 때 무슨 간식거리 꼬깃꼬깃 정성껏 싸서 주며 새벽기차 편으로 경성(서울)으로 떠나는 허송에게 사모의 정으로 배웅하던 순진한 시골 처녀 유순을 훗날 배우자로 생각했으므로 정선과 허송의 결합은 애당초 정략결혼의 냄새가 짙은 게 사실. 좀 이야기가 대비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스타달의 赤과 黑에서 제재소 집 아들이며 신학생인 주인공이 신분 상승을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은 전자(허송)는 피동적, 후자는 능동적이지만 원리는 대동소이, 신분 상승, 정략결혼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로 인해 결국은 허송은 결혼 1년 만에 가정을 뛰쳐나와 고향 '살여울'로 돌아가 농촌 계몽사업을, 몇 년만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살여울'을 변화시키나

호사다마라고 그 마을 사채놀이 업자 富者의 아들, 일본물을 잔뜩 먹은 유정근의 방해와 모함으로 그간의 모든 사업이 거품으로 끝나며 하물며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5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나 허송은 오히려 옥살이를 자기 성찰과 더 깊은 지식 함양의 기회로 삼는다. 한편 아내 정선은 남편의 친구이자 탕아이며 어릴 적 동네친구인 김갑진과의 불륜의 씨앗을 가진 가책으로, 남편 허송은 모든 걸 용서했음에도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 들어 자살 시도, 천행으로 목숨을 부지한다. 허나 얼마 후 곧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 선 비관과 죄책으로 비참한 신세로 얼마를 보내지만 너그러운(실제 속은 얼마나 썩었으려만, 적어도 겉으론) 남편의 헌신적 간호와 위로에 마침내 감응하여 함께 시골마을 '살여울'로 가 억척스러운 시골 아낙네로 변신, 남편 옥살이 동안 대단하게 혼자 시골집 대소사를 진두지휘한다. 한편 남편을 무고,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게 한 장본인 유정근은 처음에는 의협심 강한 마을 청년-(그도 모함으로 옥살이했음)의 죽이겠다는 말에 수동적이었지만 종국에는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거의 전 재산을 마을을 위해 내놓겠다고 마을 주민 앞에서 말하고 또한 훗날 허송을 적극 돕겠다고 한다.

민족주의자 한민교 선생도 '살여울'로와 농촌사업에 합류하며 더욱이 망나니 김갑진도 강촌 '검불량'이라는 강촌에 들어가 회개하고 개간사업을 한다는 필자 준원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 소설의 후속편을 기대하시라고 독자들에게 말하며 대미를 장식한다.

세상은 땅(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으며 인간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양식은 '흙'에서 나온다는 '흙'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소설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 요새 문명이 어땠고 4차 산업혁명이 어땠고 5차가 도래하느니, 했느니, 엘론 머스크가 무인 전기차가 어떠니 떠들고 흥과는 전혀 무관한 세계의 대 거간꾼 아마존의 베조스 등이 설치하는 세상이라지만 어머니 같은 포근한 땅, '흙'은 그래도 그중 우뚝 솟은 으뜸이 아닐까? 농촌을 경시하는 풍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으나 이런 풍조는 애초에 생겨나지 않도록 모두들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보라, 비옥한 땅 농경지 나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가루, 옥수수 값 등 농산물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뛰고 특히 빈민국들은 이런 와중에 크게 고통받고 있음을 보고도 '흙'을 경시할 것인가! 시대가 거의 백년의 차이가 있으나 인간사 돌아가는 원리나 모습은 그래도 비슷함을 느끼게 하는 소설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준원의 생애에玉에 티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편 문학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누가 뭐라고 하던 준원의 묘사력은 한국의 셰익스피어가 아닐까 한다. 어느 한 대목을 소개하면, 보통의 경우,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일고" 할 것을, "하늘은 일고 나는 구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라던지, "온갖 일어나는想念을 머리에 맡긴다"

애독자의 한 애송이 필자가 감히 대가를 평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바로 잡습니다**

지난 4월호 제9면에 게재된 이수인 (63) 동문의 글 'Dostoevsky는 왜 죄인이 됐나'에서 Medial Temporal Lobe는 Mesial Temporal Lobe로 '더 설명할 수가 없다.'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로 바로 잡습니다.

<전면에서 계속> 그는 공수부대 마크를 달고 있는 육군 대위였다. 무사히 월남전에서 돌아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일 경상도 출신이 아니면서도 육군 중장까지 진급한 실력파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 특전사령관으로 있다가 후일 퇴역한 장군이다. 그 외로 기억이 나는 국민학교 급우들 중에는 이영철, 최영진, 홍준호, 공부 잘하던 권용, 한마을에 살던 김석만이 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도 형과 누나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황소의 머리를 그리라는 미술 문제가 시골에서 올라온 나를 합격시킨 셈이다. 이 30점짜리 유명한 미술 문제는 박상욱, 김경승 선생님들이 출제하셨다. 이렇게 하늘이 주신 축복으로 합격한 나는 경기 중학교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열심히 공부했다. 면접시에 맹건호 교장 선생님이 합격되면 살림을 누가 하느냐고 물어보시기에 진명여고에 다니는 누나와 형이 한다고 대답했다. 자취 살림에서 두부와 콩나물은 내가 사 왔다. 학교에는 좋은 친구들도 많았고 선생님들도 참 훌륭하셨다. 입학 몇 달 후에 화동에 새로 지은 중학교 현대식 건물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덕수국민학교 가교사를 떠나서 화동으로 이사를 했다. 화동 언덕의 미군들도 철수하고 수영장이 있던 고등학교 건물로 타향살이를 하던 고등학교 상급 학생들도 들어왔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한 캠퍼스에 모였다. 자유인 평화인, 문화인이란 교훈을 남기신 조재호, 이종림 교장님들이 바뀌고 서울고등학교를 시작한 김원규 님이 교장으로 취임했다. 스팀이 들어오는 현대식 교실에서 음악당, 체육관, 도서관, 밴드반, 승마반, 야구부, 테니스부, 유도부, 수학반, 화학반, 생물반, JRC 반 등등 좋은 시설과 과외활동의 기회가 학생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김원규 교장님은 아침마다 훈시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세계 제일의 인재가 될 자질이 있다고 프라이드를 길러주었다. 그 외의 우인섭, 김세영, 김영진, 서장석, 김인숙,

김열환, 현재 95세이신 메뚜기 별명의 신동준, 이어령 평론가, 소설가 장용학, 남정임 등등 여러 은사님들이 기억난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과목마다 참으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쳤다.

나는 효자동 전차 종점에서 땀땀거리며 전차를 타서 서울역을 지나 남영동에 서 내렸다. 삼청동 뒤쪽으로 경무대를 바른 편으로 끼고 올라가면 효자동 전차 종점이 된다. 가끔 이승만 대통령이 강아지를 데리고 정원에 뜰에 나와있을 때가 있었다. 경호원들이 나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라고 해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

경기 중고등학교가 위치했던 화동 언덕은 원래 성삼문이 살던 동네였고 그 후 수백 년이 지나서 고종황제 때 갑신정변 실패로 삼족을 멸하는 형벌을 받고 망명한 개화파 김옥균, 서재필의 집터가 있었던 곳이다. 1980년대에 복권을 한 서재필 박사의 후손(서희원 전 이대 법정 대학장)들이 정부에 소송을 해서 그 보상을 받았던 자리이다. 우리는 거의 6년을 이 명당자리에서 공부한 셈이다.

1960년 4월 19일 학생의거를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학교가 파할 때 주신 담임 선생님의 각별히 몸조심하라는 당부 말씀 때문인지 그날 데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인심은 부정선거를 한 자유당 독재 정권에 항의했다.

3월 15일 마산에서 이를 규탄하는 학생 데모가 시작되었다. 이때 최루탄에 맞은 김주열 군의 시체가 4월 11일에 발견되어 반정부 시위는 마산, 대전고등학교, 대구, 부산, 서울 등등 전국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속도로 번졌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었지만 민주당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유당을 조작된 표수에는 이기지 못했다. 각종 언론기관 특히 동아일보도 그런 자유당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를 사람들이 애독했다. 모두들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으니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었다. 4.19가 있었던 그날 나는 대부분의

전 3천여 명의 경기학생들처럼 교정을 빠져나와서 안국동에서 직선으로 뚝뚝 중앙청 쪽을 피해서 시청 앞과 남대문, 서울역을 지나 청과동 집으로 돌아왔다. 경무대 중앙청 쪽에는 벌써 경찰들이 총을 들고 골목골목마다 지키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날 불행하게도 우리 학년 고완기 군은 종로 3가에서, 또 2학년 이종량 군은 조선호텔 앞에서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이날 흰 가운을 입고 의대생들도 참가했고 부상을 입은 학생들을 병원으로 날랐다. 학생 의거가 있던 후 4월 23일 교수들의 데모가 이어져서 학생들의 봉기를 복돋아주었다. 드디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했다. 마산 데모 시에 발포 책임자로 알려진 내무장관 최인규, 흥진기, 그중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후일 재판에서 결국 사형을 당했다. 이 대통령의 하야가 있기 전 이기붕 가족의 자살을 보도했는데 정말 큰 아들 이강석이 그랬을까? 아니면 누가 그들을 죽인 것은 아닐까? 그 아침에 서울의 하늘에 '땡땡땡'하며 귀가 아프게 울리던 여러 발의 총소리를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은 4.19 혁명 후의 데모, 파업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이 문제였다. 구과 윤보선 대통령, 구과의 김도연 총리 국회 인준 부결, 신파인 김상돈 서울시장, 외무부 장관 정일형, 주요한, 박순천, 신파의 장면 총리를 기억한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민심을 수습하지 못한 장면 정권의 무능, 그 실망하는 민심을 이용하여 소장파 군인들이 일으킨 5.16 군사 혁명. 주동자가 아니었던 육군 참모총장 중장 장도영, 후일에 오하이오와 후로리다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 학자와 같은 교수 장도영 박사를 기억한다. 결국 남한에서만이라도 5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했다. 한편 1948년에 북한에서는 정부 수립 시에 이밥(쌀밥)에 고기반찬을 주

민들에게 약속했는데 그 지도자들이 2022년 현재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에 비교하면 남한에서는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 의학, 예술, 과학의 발달,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비롯하여 빛나는 문예부흥을 성취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세대는 자랐고 때로는 목숨을 내걸기도 하면서 피와 땀을 흘렸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금지를 갖고 민족의 원대한 꿈을 펼치고 있다.



4.19 그 당시 전국 각 고등학교, 대학교마다 희생된 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혁명에 희생된 두 명의 화동 학우들과 서울대학에 재학 중이던 최정규, 박동훈과 함께 네 명의 영혼을 기리는 민주혁명 학생 위령비가 이희승 글, 명필가 김충현 글씨로 1976년에 화동 캠퍼스에 세워졌다. 그 후 모교가 강남으로 이전되어 민흥기 교장 때인 2002년 10월에 회동에서 삼성동 현 교정으로 그 위령비를 옮겼다.

이런 파란만장의 시련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을, 우리의 기업인들을, 과학자들을, 예술인들을, 뛰어난 운동선수들을 보라.

나는 정중히 부탁하고 싶다.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정독도서관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이여!

화동 언덕의 이름 높은 역사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있으리라 믿는다.



# 임진전쟁



온 기 철(71, 남가주)

## 1. 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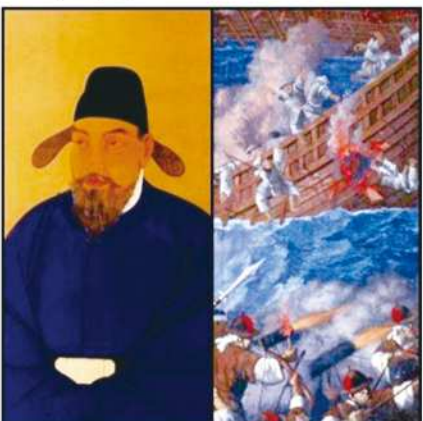
### 최무선과 신숙주 그리고 왜구

참고: hp-jun.tistory.com 역사로 보는 정치; 최무선

조선은 바퀴 달린 차가 다닐 수 있는 육로가 없었다. 가장 넓은 길이 장정 셋이서 어깨를 붙이고 서면 딱 차버리는 지경이었다. 요즈음 등산로가 조선의 육로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연히 사람이 물건을 등에 매고 다녔다. 그래서 가마, 지게, 보부상 등 사람이 육로 운송을 직접 담당하는 나라가 되었다.

호남 지방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모두 배로 운반했다. 세금을 곡식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열악한 육로로 사람이 두 발로 걸어서 운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고려 때에도 세금을 수로로 운반했다. 조선이 열악한 육로를 가지고 있었다면 고려는 말할 나위 없었을 것이다. 왜구는 세금 운송선을 노렸다. 해안 주민들을 약탈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세금이 떨어지면 국고가 흔들렸다.

왜구 토벌 덕분에 최영 장군과 이성계라는 영웅을 만들어 냈지만 정작 왜구로부터 나라를 구한 장본인은 최무선이다. 최무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배에 화포를 장치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섬멸한 것도 최무선 덕분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북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이 뒤엉켜서 역사를 만들어 왔다. 임진전쟁도 일본이 조선으로 쳐들어 오고 명나라 원군이 조선에 들어와 진행되었다. 1380년 왜구가 금강하구로 전선 500척을 이끌고 쳐들어 왔다. 전라북도 군산과 충청남도 서천이 마주 보는 지역이다. 군산 근처 임피에는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저장하는 진성창이 있었다. 이 지역을 진포라고 하였다. 최무선은 함포를 적재한 군함 100척을 동원하여 왜적 함대 500척을 섬멸했다. 서천지역에서는 나세 장군이 왜적을 제압했다. 왜구 또는 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얼핏 해적을 상상하게 한다. 그러나 일개 도둑에 불과한 집단이 어떻게 500척이라는 큰 해군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공략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의 일본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두 명의 천황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를 남북조 시대(1336-1392)라고 한다. 북조는 교토에 남조는 요시노(오사카 동쪽)에 근거지를 두고 출발하지만 남조는 규슈로 밀려난다. 1380년 대에는 규슈의 남조가 북조에게 크게 밀렸던 시기이다. 남조는 북조에게 땅을 빼앗겨서 부족한 곡식을 약탈로 메꾸려 하였다. 당시에는 곡식이 요즈음의 돈과 같았다. 말하자면 해적을 조직화해서 조선의 곡식 창고를

털려고 시도한 것이 진포 대첩이라고 할 수 있다. 1392년에 북조에 의해서 남조는 통합되었다.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계속 발전시켰다. 이전에는 왜구가 육지로 들어오기를 기다려 전투를 벌이는 수밖에 없었다. 최무선은 바다에서 왜구를 물리칠 수 있는 수전화공정책을 확립했다.

고려는 우세한 화력으로 1389년 왜구의 가장 중요한 기지인 대마도를 정벌했다.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군사정변을 일으킨 다음 해이다.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했다. 그리고 화통도감을 철폐했다. 최무선은 너무 실망하여 은둔의 생활을 시작했다. 1395년 죽으면서 아들 최해산에게 화약수련지법이라는 책을 비밀리에 간직할 것을 부탁했다. 그는 준기사에서 무기 개발에 매진했다.

진포대첩이 있었던 1380년은 원명 교체기에 속한다. 1368년 명나라가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함락하여 건국했지만 원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1388년이다. 일본 남조가 지원하는 왜구는 대만과 명나라 남해안까지 진출했다. 이들은 중국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기도 했다. 이와 같이 명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북에서는 원나라의 잔당과 남에서는 왜구와 싸우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나라는 남조 일본 천황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지만 왜구의 출몰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원나라가 1388년에 완전히 소멸되자 명나라는 건국 초기에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벌 계획을 세웠다. 상왕 태종과 세종은 만약 명이 일본 정벌에 나서면 조선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세종대왕 시절에 왜구는 명나라에 많이 출몰했고 조선 쪽은 조용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과 세종은 1396년 명이 일본 정벌을 시작하기 전에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다. 대마도 종주는 조선의 우세한 화력에 당할 수가 없어서 항복했다.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하고 조선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조선은 대마도에게 삼포를 개항했다. 삼포는 부산포(동래), 내이포(진해), 염포(울산)이다. 이곳에 왜관을 설치하고 무역을 허락했다. 이후 명나라 해안의 왜구 출몰이 잠잠해지고 명나라는 일본 정벌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조선 세종 1년 대마도 정벌 "왜구 소탕보다 명의 일 정벌 차단; 이규철: 서울신문 2009년 3월 18일) (조은 스카이, 크레인; \*숙주나물 신숙주 참고)



조선 초기의 명신 신숙주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성종 밑에서 요직을 맡아 공적을 쌓은 인물이다. 1443년(세종 25년), 서장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7개월 동안 일본(혼슈, 규슈, 이키도, 대마도)과 유구국을 여행하며 일본의 지리, 풍습, 제도, 국민성, 언어 등을 자세히 관찰했다.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 들려 종주와 계해조약을 체결하여 왜구가 조선을 더 이상 범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그는 1471년(성종 2년) 일본을 다녀온 지 28년 만에 일본 방문을 토대로 여행기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안보와 외교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발간했다.

신숙주는 서문에서 일본 사람들은 성격이 사납고 믿을 수가 없으니 항상 경계해야 하지만 무력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외교로 다스려야 하며 전란을 막기 위해서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왕에게 충고했다. 그는 또한 임종시에 성종에게 "일본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되 저들과의 화호(좋은 관계) 만은 끊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징비록)

\*'녹두가 변해서 나뭇잎이 된 것처럼 신숙주가 사육신을 배반했다는 뜻으로 '숙주나물'이라고 한다고 한다.

성종은 신숙주의 유언대로 일본에 사신을 보냈으나 풍랑을 만나 대마도에 몸져 누워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왕은 편지와 예물을 대마도주에게 맡기고 오라고 명했다. 마침 일본은 전국시대에 돌입하여 다이묘(영주)들이 패권을 놓고 서로 싸우는 전화에 휩싸였다. 1497년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천하를 통일하던 해인 1590년까지 무려 백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다. 이를 센고쿠 시대라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전화 때문에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자연히 왜구가 되어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구는 일본 본토, 조선, 명나라 해안에 출몰했다. 무려 백 년 동안 조선 조정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안중에 없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그저 왜구였다.

"조정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신숙주의 충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국방은 둘째고 인성이 먼저였다. 성리학이 그 꽃을 피우고 있었다.

토요토미는 천하를 통일하고 왜구를 근절시켰다. 그리고 1592년 대륙 정벌이라는 대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선을 침공했다. 조선 조정은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했다. 그저 해적의 준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도요토미는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과 최무선이 발명한 화포가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조총으로 무장한 지상군은 일본이 엄청나게 강했지만 함포로 무장한 군함을 보유하고 명장 이순신이 지휘하는 해군은 조선이 훨씬 강했다.

## 2. 동북아 정세

### 선비의 나라 조선 무사의 나라 일본

#### 일본

<https://m.blog.naver.com/naverschool/221313257116>

1492년 콜럼버스가 서인도제도에 도착하고 마젤란이 남아메리카 남단의 마젤란 해협을 지나 태평양을 항해해서 1521년에 필리핀에 도착했다. 이와 같이 15-16세기는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던 대항해시대의 시작이었다.

1543년 8월 25일, 규슈 남쪽에 있는 작은 섬 다네가시마에 중국 선박이 표류했다. 이 배에는 포르투갈 사람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섬의 영주 다네가시마 도키다카에게 조총을 소개했다. 50보 떨어진 거리에서 조개껍질을 박살 내는 조총의 위력을 본 그는 비싼 값을 치르고 조총 두 자루를 구매했다. 16세에 불과했던 그는 조총을 분해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하고 화약 제조법을 배웠다. 1년 후에 조총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4201#home>

조총이 들어올 무렵 일본은 다이묘(영

주)들의 세력 다툼으로 전국이 전화에 휩싸여 있었다. 1467년 오닌의 난 이후 쇼군의 권력이 약화되자 전국 다이묘들은 대권을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센고쿠 시대(1467-1590년)의 시작이었다. 1575년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은 나가시노에서 다케다가츠요리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전자는 조총으로 무장했고 후자는 활을 사용했다. 연합군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조총은 일본 말로 뱀뱀인데 뱀뱀이라는 말은 '조총 없이'라는 뜻으로 무모하게 덤비는 경우에 쓰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의 힘을 빌려 16세기 중엽에 일본을 거의 통일했다. 그러나 부하 아케치 미츠히데에게 피살 당했다. 오다의 충복 하시바(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케치 미츠히데를 공격하여 살해했다. 하급 사무라이였던 하시바 히데요시는 길거리에서 바늘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난했다. 오다의 부하가 된 그는 온갖 굶은일을 다 하며 철저히 복종하여 오다의 신임을 얻었다. 마침내 그를 승계하게 되었다.

하시바 히데요시는 1583년 오사카 성을 쌓고 1584년 도쿠가와 이에쓰나와 화해를 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천하를 통일했다. 1585년 천황은 그를 관백에 봉하고 1586년에 도요토미라는 성을 하사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사쓰마 국의 시마즈 세력을 정벌하고 마지막으로 고호즈 일가를 굴복시켜 통일의 마지막 마무리를 했다.

60개의 번으로 갈라져 100여 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사무라이들은 무척 바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할 일이 없는 사무라이들은 불만이 쌓였다. 미천한 출신인 도요토미 또한 무엇인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옛 보스 오다로부터 대륙 정벌에 대한 야망을 항상 듣고 지냈던 그는 명나라 정벌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여름휴가를 명나라에서 보내 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 조선

일본이 100여 년의 내전에 휩싸여 있는 동안 조선은 야에 묻혀 있던 사람과가 기득권 층이었던 훈구파에 도전하여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은 1469년에서 1494년까지 재위했다. 일본 센고쿠 시대 초기에 해당한다.

조선이 일본에 보낸 사신이 배멀미로 대마도에서 돌아오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두절되었던 시기이다.

조선은 건국 중신들의 세상이었다. 많은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아 새 나라의 기득권 층을 형성했다. 이들을 훈구파라고 한다. 한편 정몽주, 이색, 길재 등 온건파 신진 사대부에 그 근원을 둔 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를 사림파라고 했다. 이들은 야에 묻혀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몰두했다. 그들은 왕권을 기반으로 한 향촌 지주 중심의 통치 방법을 선호하였다.

세조의 반정 이후 훈구파의 권력 집중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의명분이 없는 세조의 권력 찬탈은 자연히 왕이 소수의 공신들에게 (다음면에 계속)



# 共生 하자면 共死도 감수해야 한다



이 회 백(61, 시애틀)

문명이란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켜 자기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이 다른 만물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있었다. 특히 기독교 문명 지역에서 그랬다. 성서에도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연을 지배할 권리가 주어졌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에 의한 원죄설, 바벨탑 이야기에서 말해주듯 신은 인간이 신에 도달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있다. 희랍 신화에서도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네준 프로메테우스에 노한 제우스 신이 형벌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매일 떼어간다고 되어있다.

신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되는데 그 선이 어디인지 분명치 않은 게 문제다. 따라서 무엇이 정의인지 불의인지도 불확실하다.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생각되는 예가 원자력이다. 안전을 꾀하려고 만든 원자폭탄이 전 인류를 멸게 만들고 있으니 분명히 선을 넘은 행위다. 사 용이 급기시되던 원자폭탄을 최근에는 쓰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마천루가 문명의 종말을 고하는 상징, 현대판 바벨탑이라는 사람도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해 살기가 좋아지고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나날이 길어져 영생도 가능하고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도 꿈꾸게 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으로 환경 오염, 자원 고갈, 기후변화가 따라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이 꿈은 깨어졌다. 기후변화가 인류 문명이 가져온 탓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인류는 바이러스도 되지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우주가 지구를 위해 존재하지 않듯이 온 세상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도 다른 생물과 공존, 공생할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共生 하자면 共死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생물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게 인간의 욕심이다. 하지만 우리만 살겠다고 할 때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장수를 바라면서 다른 편으로는 사회가 고령화되어 큰일 났다는 게 우리다. 최근에 돼지 심장식이 성공했다는 보도에 이어 돼지 신장 이식도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것이 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느냐 아니냐는 나는 따지지 못하겠다. 그러나 단 몇 사람의 생명이라도 연장해야겠다고 노력하는 세상인데 '共死' 운운하는 나는 화형에 처해 마땅할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나는 共死 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나.

<전면에서 계속> 국정운영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논공행상에서 얻어진 막대한 토지와 훈인으로 엮어진 왕실과의 인척 관계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력층을 형성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향촌 지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성종도 훈구파의 횡포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성종은 사림과 인사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훈구파와 사림파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의 기묘사화, 명종 때의 을사사화를 거치고 선조 때에 이르러 사림파가 득세하게 된다. '사화'는 사림파의 '화'라는 뜻이다. 훈구파가 사림파를 제거하려 한 사건이 사화이다. 백성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 하지 않고 사욕을 채우려는 훈구파에 반기를 든 강직한 사림파가 억울하게 화를 입었다는 뜻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선조시대에 성리학이 꽃을 피웠다. 이이(이율곡)과 이황(이퇴계)이 활동하던 시기이다. 조선 왕 중에 최고의 명필이었던 선조는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기를 즐겼다. 그야말로 사림파들이 좋아하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림파는 돌로 갈라졌다. 당파의 시작이었다.

서인은 윤두수, 정철 등 나이 많은 대신들이었고 동인은 유성룡, 김성일 등 신진 젊은 사람들이었다. 당시의 조정은 동인이 우세한 편이었다.

이와 같이 16세기 일본은 무사의 나라였고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다. 전쟁은 힘의 균형이 깨지면 일어나는 법이 아니었던가? 양국의 군사력 차이는 극명했다.

## 명나라

명나라의 만력제는 일종의 정치 파업 중이었다. 일체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환관이 정치를 했고 부패가 만연했다. 만력제의 스승은 장거정이었다. 그는 무척 엄격하여 만력제는 그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의 말이라면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따랐다. 특히 그는 검소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던 중 장거정이 거액의 부

정 축재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력제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는 실의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만력제 재위 동안 명나라 주위에서는 3대 정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서남쪽 산악지대 파주에서는 양응료의 난(1591-1600), 북쪽 몽고 지방 영하에서는 보바이의 난(1592년), 조선에서는 임진왜란(1592-1598)이 명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다. (사진: 명나라 13대 황제 만력제)



조선은 건국 이래 사대주의를 채택하여 명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조선의 왕은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제도였다. 조선이 하나를 가지고 북경을 방문하면 명은 셋을 조선에게 주었다. 체제비와 물품 운반비도 명나라가 부담했다. 명은 조선의 내정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조선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명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군신관계는 명이 조선의 국방을 맡아 준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일본과 명나라는 군신관계가 아니었다. 일본이 조공을 허락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겨우 10년에 한 번씩 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1547년 명은 일본의 조공선 입항을 금지했다. 자연히 명나라 항구에 왜구가 창궐했다. 일본은 조선에게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으나 조선은 이를 거부했다. 일본은 겨우 마카오를 통해서 명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었다.

동북아의 국제질서는 명이 대국 즉 1등 국가이고 조선은 2등 국가이며 일본은 3등 국가로 유지되었다.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 항상 상국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 장간곡 長干曲

## 장간의 노래



정 관 호(63, 대뉴욕)

長干曲四首 장간곡 4수	盛唐崔顥 성당 최호	장간의 노래 4수 성당시인 최호
其一: 기일 君家何處住? 군가하처주?	妾住在橫塘 첩주재횡당.	제1회 당신 집은 어딘가요? 첩은 횡당에 산답니다.
停船暫借問, 정선잠차문,	或恐是同鄉 혹공시동향	배 멈추고 잠시 물어보나니, 혹시 두렵건대 동향이 아닌지요.
其二: 기이 家臨九江水, 가림구상수,	來去九江側 내거구강측	제2회 집은 구강물가에 있어서 오며가며 구강가를 지나지요.
同是長干人, 동시장간인,	自小不相識 자소불상식	같은 장간인인데, 어려서부터 서로 몰랐군요.
其三: 기삼 下渚多風浪, 하저다풍랑,	蓮舟漸覺稀 연주점각희	제3회 하저호에 풍랑이 많고, 목련배는 점차 보이지않네요.
那能不相待? 나능구상대?	獨自逆潮歸 독자역조귀	어찌 서로 기다리지않고, 홀로 조수를 거슬러 돌아가나요.
其四: 기사 三江潮水急, 삼강조수급,	五湖風浪湧 오호풍랑용	제4회 삼강에 조수가 급하고, 오호에 풍랑이 용솟음쳐요.
由來花性輕, 유래화성경,	莫畏蓮舟重 막외연주중	원래 꽃의 성품이 가벼우니, 목련배 무거움을 꺼리지말아요.

Changgan Ballad I of II by CUI Hao

Where is your family home, sir,  
As for me, I live by the Wide Bay.

I stop my boat briefly to make an enquiry,  
I have a feeling we're from the same place.

Changgan Ballad II of II by CUI Hao

I used to live by the waters of Nine-river Town,  
I used to go about the nearby waterways.

Though we're both people of the Changgan region,  
I left when we were too young to make each other's acquaintance

## 작자 간개

최호는 당대 시인으로 변주(현재 하남성 개봉시) 사람입니다. 개원 11년(723년) 진사에 올라 상서 사훈 원외랑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초기 시는 유정을 많이 그리어, 여인의 아름다움에 떠다니고 경박하였다가, 홀연히 그의 일정한 형상을 바꾸어, 풍골이 늙어지고, 더욱 그의 변세시에 강개호매하여, 웅장하고 막힘이 없이 분방하였습니다. 최호 집을 남겼고, 전당 시에 42수가 나왔습니다.

## 정관호 생각

제1절 여사공이 수작을 건넸고, 제2절 남사공이 대꾸하여 정취는 무르익는 듯. 하지만 제3절에 떠나가려는 남사공에게 거둬 수작을 보냈으나, 그의 뜻이 딴 곳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목련배 노를 지어 떠나갑니다... 제4절에서 "꽃의 성품이 가벼워, 목련배 무거움을 탓하지 마오."라 하였으니, "그대는 꽃, 나는 목련배라오. 꽃 같은 그대가 어찌 사나이 뜻을 알리오?" 하는 말을 남기고, 남사공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 꽃 아가씨의 한바탕 봄 꿈이런가요?



# 성도착증과 성 전환 의욕의 본질

김 해 암(58, 대뉴욕)

### 들어가는 말:

현대 정신 의학은 과학에 대한 심한 의문과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의 큰 회의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ophie Freud가 94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는 할아버지, Sigmund Freud의 학설을 믿지 못했다면서 자기는 정신분석보다는 사회사업으로 직접 환자를 돕는 길을 택했다고 고백하였다. 사실상 정신 치료의 과학적인 학설만으로 치료가 될 수 없고, 약물 치료도 특정 완치 약이 없다 보니,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최신 신경과학과 미세포 분석 기술과 세포 구조와 유전자의 연구도 두렵한 목적의식 없이 연구할 뿐이고, 막대한 연구비 지출에 상당하는 실용적 치료법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21세기의 첨단 의학이 맴돌고 있나 살펴보자.

현대 정신 의학은 거의 모든 방면의 정신, 정서와 감정의 표현, 발표와 억제 등을 가능하면서 정상치를 벗어난 상태를 병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감성의 극대화, 분노와 폭행, 총기 난사, 살인 등이 정신병 분류 계열에 들어가고, 도박, 투기 등도 도가 심하면 정신병, 약품의 사용도 도가 넘거나, 의사의 지시가 없거나,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병이라 칭하고, 인터넷, 과잉 소모, 비대증도 병으로 분류하다 보니, 수백 가지로 늘어만 가고 있다.

병을 분류하는 것이 그 병리를 찾고 치료법을 연구해 내는 시작이라 하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활동 영역이 팽창하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연구 방법의 미비한 점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원인을 발견하여 진단하는 방법론도 진전이 미비하다 보니, 조속한 진단과 치료의 적용으로 병의 확대를 막는 의술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치료자인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에 의존할 수 없는 정신병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현대병의 하나가 성적 장애와 남녀의 사회적 구별과 가정의 구조의 변경으로, 남녀의 직업과 활동의 한계가 변동하다 보니, 성적 차이며 역할이 구별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마음에 혼란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 알아 두어야 할 용어:

Binary, Non-binary, Bisexual, cis-gender, Gender Nonconformer, Perverts and perversion, Transvestite, LGBTQ People on Tumblr

### 역사적 배경:

이름난 문호들은 이미 이런 성 도착증에 대한 해안을 가졌다.

William Shakespeare, Jane Austen, C.S. Lewis, Oscar Wilde, Lawrence Durrell, even William Lily in 1500's mentioned about sexual interludes calling them 'they' as singular.

무엇을 일컬느냐 하면 성적 정체성이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립이 안되어 있을 경우 사람들이 '그놈들' '그년들' '그 또래' 대신 '그들'이라는 복수 칭을 남녀를 합쳐서 '그들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언어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가? 문예인들이 중성 칭을 써 온 이유는 무엇일까?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위에 말한 저명한 문호들이 '그들이'라는 통칭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사랑에 빠지는데 남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든지, 사랑, 성공 또는 실패를 경험할 때, 남녀를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

나, 아니면 다 똑같은 경험으로 표현함이 편하다는 개념이 문학의 세계를 망라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세대는 Me Too의 사회상이 달라지듯 동일성과 차이성을 구별해야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남녀의 느낌이 다를 뿐 아니라 동일시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런 풍조가 매일 같이 인간의 두뇌를 두들기는 IT의 세계에 사는 젊은이들은 서로 사귀어 경험하기보다는 혼자서 양쪽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심정에 빠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동성 애인을 가지거나, 이성 애인을 따로 가지기보다, 양쪽을 때에 따라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편리한 방도를 가지면 자아 만족의 극치를 달릴 수 있다는 상상이 현실화된 것이 성전환의 무의식적인 심리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사회의 통계를 본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13-25세 사이의 남녀의 7.6%가 성전도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본다. 대중 짐작하여 젊은이들의 10명 중 1명이 성전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신과를 찾는 젊은이가 오면 먼저 양성 생활을 하는가(bisexual), 아니면 성전도자(trans-gender) 인가를 구별하고 시작해야 한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약 30여 년 전에 창궐했던 동성 애인들, 양성 애인들은 얼마나 되나 하면 각 주마다 통계가 다르지만 추산으로 0.9%의 성인 인구를 점유하는데, 전 세대에 창궐한 에이즈(AIDS)와 높은 자살률과 기타 질병으로 기성세대는 권리주장을 펼칠 여력이 없었으나, 젊은이들, 30-40만 명을 감도는 차세대 주인공들은 권리주장을 크게 벌리려는 전망이다. 숫자로 환산하면 대체로 160만 명이 넘는 수는 13세 이상을 계산에 넣지만 중년 이상은 제외한 추산적인 숫자이고, 증가 추세로 보아 실제 인구는 배 이상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 트랜스 젠더의 형태와 현상: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리적으로 남녀 성기를 뚜렷하게 가지고 탄생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남녀 성기를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성 염색체 XY가 남녀 똑같이 있으나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외모의 성 구별을 만들게 되다 보니 어머니가 남성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되는 경우 아이가 여자로 태어나더라도 남성의 특징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나는 한국서 고등학교 재학 시에 내 반의 반장이 여성 티가 뚜렷이 보였다. 고2 때에 키가 6척이 넘고, 덩치가 크며, 궁둥이도 넓고 커서 여성다운 몸매 애교가 꼭 여자같이 부드럽고, 웃는 것이며, 손놀림이 꼭 여성 같았다. 체육 시간에 다들 웃 웃을 벗었으나 이 학생은 입고 있고, 선생님이 허락하고 있었다. 이 학생은 반장 일을 잘하고, 친구들과도 많고 인기가 좋았다. 대학에도 일류급으로 입학하고 공부도 잘한 편이었다. 반 친구들은 이 학생이 어떤 장래를 가지나 관심이 컸다. 대학 졸업 후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하다가 근 40세 가까이 되어서야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두는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생리적 한계를 잘 이끌어 간 예이다.

이런 경우는 생리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출생 전후에 cis-gender로 태어난 아이가 여성의 특성을 몸에 담아서 성장기와 장년까지 성적 정체성 유지에 고심한

# 은퇴 목차目次

김병오 (69, 버지니아)



진정 바람이 없는 날이 바람이어도

가끔 넓은 도매상에 가서 거위처럼 어슬렁거리는 일

어쩌다 관측용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노라면 일 년에 한번 불가 말까 하는 주식부자 동창 부부 우리 곁을 지나고 있어 황급히 얼굴 가려 움긴 곳이 하필이면 쓰레기통 옆자리 웅색해서 당황하는데 눈길이 마주치는 일

가난해지며 부유해지는 일

아직도 새벽 발동 소리에 깜짝 놀라 빈 손목을 보다

보슬비에 구겨진 아침 신문 펴서 읽는 일

감나무를 심으려고 햇수를 세어보다 먼 산 바라보는 일

명이 나물을 옮겨다 심는 일

먼 날을 헤아리다 목욕물이 넘치는 일

모르는 사이 때가 되어 감쪽같이 사라진 것들을 세어보는 일과

울타리 너머를 포기하지 못해 서서히 울타리를 치우는 일

어느 날 미래와 만나 정중히 미래이기를 거부하는 일

해부학교실 앞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커닝햄 책장을 넘기던

오월의 현기증을 그리워하는 일

저녁별을 바라보다 기러기가 되어 훨훨 날아가는 일

꿈속에서 돈화문 골목길을 따라가다 젊은 어머니를 만나는 일

꽃사슴 같은 아내와 손을 잡고 허위허위 짙레꽃 핀 언덕길을 돌아가는 일

죽어서 살고 싶은 세상의 목차를 꼼꼼히 챙겨보다

어느 날 모두 저녁 강물에 띄워보내는 일

세상 모두 백수가 되어 달마처럼 웃는 날이

지상의 꿈이고 과업인 일이다.

성공의 사례이지만, 성장 도중에 실패를 거듭하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성도착증'이라는 괴물이 있다는 사실이다. 서양에서는 예부터 성 도착증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동양에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다.

기독교에서 부도덕적 성행위를 죄악시켰으나, 동양에서는 하나의 변태적 현상, 미숙한 성적 발육 현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Trans-vestism, Voyeurism, Fetishism, 근년에 나타난 Rainbow phenomenon 등을 크게 문제시 않았으나, 서양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시된다. 나의 뉴욕에서 겪은 임상 경험으로 보아도, 한 국민에서도 모든 종류의 성 도착증을 거의 다 보았다.

다른 한 예를 들어 보자. 임상적으로 젊은 백인 여성 학생과 한 남성을 다루어 보았는데 모두 매끄럽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여성 아이들 중에 자기 몸을 혐오하고, 면도칼로 팔, 가슴, 젖 그리고 허벅지를 난자하며, 자살 시도를 한두 번씩 한 경력이 있었다.

청소년들 중에서 목소리가 여성 같든지, 키가 작고 피부가 고르면, 놀림을 당하거나,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한 친구를 만들어 보호를 본능적으로 받아 적응해 가는 경우도 있다.

### Culture War와 성적 충동이 어떻게 움직이나?

인종 문제를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관찰하게 되는데, 근년에 법제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운동, 동등한 인간 대우, 다 인종 사회의 질서 등을 거론하게 된다. 여성의 권리 주장으로 시작되는 '미 투' 현상, 여성 아동의 성매매, 2-3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혼의 빈번함, 출산율의 저하, 독신자의 급증 등이 문화적 현상으로 부각 되면서, 소위

'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변화가 먼저인지, 인간의 성적 혼란이 먼저 일어나 문화적 충동을 이끌어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대 사회는 내적, 외적 변화를 불러들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사회성 중에 특이한 현상은 미신과 허위 정보의 난발, 그리고 도덕성의 타락 등을 볼 수 있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 건전한 성생활을 가지려면, 옛 결혼 제도만으로 유지될 수 없기에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유지해야 한다. 인종 간의 경쟁, 질투, 또 정복욕으로 치닫는 문화 전쟁은 더욱 치열해 가고 있다. 표면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문화 경쟁에서 잠재적인 문화 전쟁은 치열하게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우리는 문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전쟁을 지켜보아야 한다.

### 부모들의 이해와 지혜의 필요성:

가족 제도의 변천으로 핵가족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은 의학의 발전과 생활의 편의함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들 수 있겠다. 자녀들이 적응수록 부모에의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다양한 가정 활동이 전개되고 여성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반면에 핵가족 사회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체성보다는 부모의 개인적 인격에 자녀들이 매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형제가 단출한 경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프로이트의 에디프스 복합체가 문제가 된 것도 가족의 단축화와 핵가족 생태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다. Post Freud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가정 상황은 Oedipus conflict 외에 다른 충동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ender Identity의 문제, 인격 형성의 문제, 사회성의 변화, 사고와 만남의 제한성 등 부모도 (다음면에)



# 졸음



김창남(69, 대뉴욕)

수련의(정신과) 시절 외래 담당이었을 때 “상담 도중 졸리면 어떡하나?”가 토론의 주제가 된 적이 있었다. 무의식, 충동(drive), 억압, 초자아, 자아 등등 요란, 뽀적지근한 용어, 개념들이 오가야 마땅할 이년 차 수련의 事例 토론 case presentation 시간에, “상담 도중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는 얼핏 듣기에도 격이 떨어지는 주제다.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다. 도대체 긴장감이란 게 보이지 않는다. 뭐? 수련의가 상담 시간에 졸려? 기압이 빠져도 한참 빠졌네! 부라린 눈에 호롱이라도 떨어지는 건 아닌가 했는데 의외로 양순한(?) 대답이 나왔다. “졸리면 졸아야지 어떡하겠는가? 단, 처음 5분과 마지막 5분 동안은 깨어 있어야 한다.” 좀 맥이 빠진다. 이 교수님, 혹 어딘가 켈기는 데가 있어? 즉 많이 졸아 본 스스로의 과거력 때문에 -과감한 꾸증을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 처음 5분과 마지막 5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길어질 것 같으니 -생각이 잘 안나기도 하지만 -생략하기로 하자. “졸더라도 들리면 안 돼!” 교수님 농담처럼 덧붙이신 한마디, 모두를 웃게 했던 오직 이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 있을 뿐이다.

수련의 시절, 상담 중 잔다는 건 내 상상력의 범주를 벗어나는 단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영어

가 모국어인 수련의한테나 가능한 사치라고 여겼었다. 환자의 말 알아듣는 것마저 급급하던 시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도 한 반쯤 밖에 안 들어오던 시절 그 시절에 졸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더구나 매주 만나는 지도 교수에게 환자가 이렇게 말해서 제가 저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게 하도 알미워 귀싸대기를 한 대 울리고 싶었습니다 등등 復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상담 중 잔다는 건 라캉의 용어를 빌리자면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한, 기표로 표시 불가능한, 실재(實在)였다. 정신분석가의 상담 시간은 50분이었어. 정신분석가의 상담 시간은 50분이었어. 금과옥조를 과감히 깨부순 이가 있으니 라캉이다. 라캉의 변동 상담 시간-정신분석의 임의(?)로 상담을 끝내는 거다. 내 수련의 시절에는 라캉의 이름은 없었다. 멜라니 클라인 코호트 등 대상관계/자아심리학자들 만이 불쌍한 수련의들을 괴롭히던(?) 시절, 환자와 꼬박 50분을 앉아있으려면 고역이다. 이런 배경하에 졸리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온 거라 생각한다.

이 환자, 고작 한 달 전까지 만해도 다른 정신과 의사를 보고 있었다. 왜 내게 오셨소? 먼저 정신과 의사가 상담 중 고개를 끄덕이며 졸더라는 거였다. 이 정신과 의사 양반 들켰구나! 정신과 의사 상담 중 잠에 떨어진다는 건 택시 기사 운전 도중 깜빡 잠드는 것과 뭐가 달라? 다 직업의식의 결여라고 나는 주장한다. 그렇기는 하나 잠에 떨어지는 건 한갓 나태, 경범에 지나지 않는 반면, 잠에 떨어지는 걸 들킨다는 건 뻔뻔스러움이다. 뻔뻔스러움이란 건 남의 자존심에 해를 끼치는 重犯이다. 다른 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윤리적인 문제다. 그래서 옛 교수는 들키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닌가? 운전 도중 깜빡하는 기사가 운전하는 택

시에선 내리는 게 상수다. 그래야 몸과 생명을 보전하리라. 잘 하겠수. 나의 이러한 일련의 사고 과정은 특히 윤리의식 운운은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편이 점잖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뿐이다.

지난밤에 잠을 설쳤나 보다. 한 평생 살면서 잠 설친 밤이 한두 번이랴. 하지만 설친 밤잠 때문에 낮에 환자와 상담 도중 졸린 적은 아직은 없었다. 못 견디게 지루했던 적은 있었어도 졸리기 까진 아니었다. 현대 지금 수마(睡魔)가 찾아든다. 살바도르 달리의 수면이라는 작품이 환자의 얼굴과 겹쳐진다. 중력을 견디지 못해 한사코 땅으로 떨어지려는 커다란 머리 통이 십여 개의 작대기로 지탱되어 있는 그림. 막무가내로 감기는 눈꺼풀은 코에 세워진 짙막한 막대 하나가 밀어 올리고 있다. 현실은 가물가물 해진다. 눈꺼풀은 시야를 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달리의 그림에서처럼 밀어 올리고 싶지만 그럴 막대가 없다.



달리가 형상화한 수마로 말하자면 달리보다 1400년쯤 전 (6세기 초)에 달마라는 선사가 보다 과격하게 연출했었다. 한사코 아래로만 처지겠다고 야로를 부리는 눈꺼풀을 막대기로 버티며 구차하게 구느니 아예 잘라버린 거였다. 아마 초자아의 개입이었으리라 사료된다. 즉

초자아의 엄중한 명령을 달마는 충실한 노예처럼 따랐던 거다. 수많은 선사들이 졸음과 싸우기 위해 가진 애를 썼다. 뽀적지근한 물건으로 몸의 일부(넓적다리 등)를 찌른 스님들의 이야기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모두가 초자아의 노예였던 건 아니다. 수호지의 화화상 노지심은 본능이라든가 충동에 대한 배려가 각별했다. 술이 고프면 벌척벌척 마시고 졸리면 대낮에 일부러 찾아온 수마라는 손님 섭섭지 않게 법당에 벌렁 드러누워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다. 속이는 것(기만)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몇 안 된다는 자아, 그 자아를 강화시킨다는 英美 자아 심리분석가들을 조롱 내지 비난하던 라캉의 인정을 받을 만하다. 노지심의 낮잠에 대한 부러움, 초자아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질투에 빠져들다가 비칠! 하며 나는 깨어난다.

들켰을까?  
지금 내 앞의 환자는 前의 정신과 의사가 처방 쓰다가 잠에 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는 바람에, 아니 먼저 의사가 잠에 떨어지는 걸 들킨다는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그 환자는 아니다. 나와 이십여 성상(星霜)을 같이 늙어온 처지다. 상담자와 피상담자라는 관계하에 말이다. 경관과 상습적 잡범들과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것처럼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인지 그 경계가 희미해진 그런 관계다. 이런 노인네가 다 있어! 하는 힐난의 눈초리도, 깜짝 놀라는 경악의 표정, 또 이 늙은이 맛이 갔군 하는 실망의 안색도 나는 읽지 못한다. 세월 앞에 장사 없지? 우리 서로 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측은지심에 못 본 척하는 건가. 아니면 이 환자 결국 다른 의사한테 가서 내가 상담 중 비칠! 하며 깨어나더라고 고자질하는 거 아닐까?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 아닐까?

<전면에서 계속> 자녀들도 다 같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부모의 애정에 대한 문제다. 자녀들이 민감하게 부모의 사랑의 성격, 강도와 깊이 등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인식이 어려서부터 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 대한 관심도가 자녀들의 성적 발전과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남성다운가, 여성다운 성격이 있는가에 따라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짐작할 만하다. 문제는 자녀들의 성적 발전이라든지, 결혼 상대를 택하는 경우 부모에게서 배운 반응 또는 역반응 등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고등 교육을 받은 부모가 아들 둘을 두었다. 큰아들은 덩치가 크고 근육형인데 비해 작은 아들은 섬세하고 재빠르고 약하게 생겼다. 어려서부터 두 남자 애들이 싸우고 부모의 동정을 살피다 보니, 자연스럽게 큰아들은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고 순종하는 버릇이 생겼다. 형제 싸움이 너무도 심하여 부모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했던 적도 있었다.

부모가 모두 핵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자녀들이 대학을 마치게 되는 나이에 작은 아들이 성전환을 선언하고 자기는 여성이라며, 이름도 바꾸고, 옷도 바꾼 것을 부모들은 대학 3년 차에서야 알게 되었다. 딸이 없던 차에 생겼으니 좋은 면도 있으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

자녀들의 성장 과정과 부모들의 상호관계 등을 이해한 후에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원래 작은 아들이 블론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바 잘 해결이 되고, 아들 자신도 외모와 양식만 바꾸되 호르몬 치료 등 할 생각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

### 사회와 정부의 갈 길:

미국 사회는 변해가고 있고 세계도 달라지고 있다. 인간 사회는 남녀가 함께

생존하고 번식해 가고 있으니, 성 전도나 성 풍습의 양상은 계속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정부나 사회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야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정치나 문화권에 따라, 사회적 욕구가 달라서 지구촌이 갈라져 살아야 할 시대가 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앞으로 UN 같은 국제기구는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뿐 아니라 인간상과 인간 생활의 변화를 연구하고 토의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는 생태계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편협되지 않고, 공정하고도 보호적인 태도로 대하고, 성전환 젊은이들을 보호함으로써 차 세대의 일꾼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 정신 분석으로 보는 해설: gender dysphoria or hysteria of a new age

동성애 현상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취급해 온 역사적 사실로 보아, 진단을 목표표로 잡을 때 성전환 현상은 시대적 ‘노이로제’나 ‘히스테리’ 증상 같은 전염성이 높은 정신적인 병폐, 내지는 유행병으로 취급할 수 있겠다. 현 정신의학의 병적 상태의 분류와 진단은 증상과 외적으로 관찰하고 볼 수 있는 생태를 중심으로 진단명을 부치고 있다. 왜냐하면 정신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의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신분석으로 관찰하고 분류를 시도하여 치료와 대책을 정립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성장과정을 육체적 성장과 함께 성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왜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번식과 부족의 흥망은 부족의 인구와 지도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최대의 관심은 건강하고 많은 자손을 보는데 있었고 성적 성장에 관심을 두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과 성적 성장과정을 중요시했다. 즉 oral, anal, pre-oedipal, oedipal, latent, puberty,

adult, middle age, 등으로 psycho-sexual development를 분류하고 있다. 성기의 발육과 정신적 성장이 병행함은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프로이트가 이론 것은 정신의 발전을 구조적 측면과 의식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성적인 발전과정과 결부시킴으로써 정신 분석의 체계를 확립한 것이었다.

프로이트의 학설의 첫 과학적 설명을 한 것은 히스테리 현상이다. 그는 정신력의 성장과 성적 발육에 부조리가 오는 경우, 여러 가지 노이로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발달 과정이 고르지 못하면 병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성 도착증이나 동성애, 또 성전환증 현상을 psycho-sexual development의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현 정신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고찰해 보자.

두 가지 학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성전환증 현상이 현대적 히스테리 현상으로 성적인 욕구의 억압 때문에 생기는 정신 신체 증상이라고 보고, 언젠가 때가 오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아동들의 육체적, 성적 발전이 빨리 오고, 성적 충동을 발산하는 것을 억압 당하기 때문에, 즉 dating, necking, petting 등이 자유롭게 못해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뿐 아니라 증가하리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Fetishism, Transvestite, Voyeurism, LGBTQ 현상은 적어지거나, 유지되면서 trans gender가 증가된다고 보는 것이다.

### 치료와 대책은 무엇인가?

Covid 19 virus의 경우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성전환 문제는 새로운 생태계의 발생이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법이 통하지 않는다. 물론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흔히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옷, 화장품, 장식품 등

로 만족하거나 비슷한 방법을 시도해 간다. 병적 증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극심한 불안증, 우울증, 공포감, 피해 망상, 불면증, 폭식, 금식, 정신 신체증상으로 위장 장애, 틱, 기분장애 등이 오고, 심하면 경계성 정신병, 조현병, 자살 시도, 음독 현상 등이 있으니 미리 예상하고 방어 기전을 생각하여 정신 치료를 받거나, coaching 아니면 career mentoring 또는 약물 치료를 받아서 예방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전문적인 수련을 받고 경험이 있는 치료자가 많지는 않지만 가족치료를 함으로써 가정의 문제, 특히 가족 간의 역할의 배당, 경계(boundary)의 문제, 재정, 감정의 조절과 갈등 등을 다루는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상담을 시도해 보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제기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신의학이 당면한 문제는 많지만 제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문제가 감정의 조절, 성생활의 만족도, 행복 지수의 향상 등이다. 물질적으로 윤택해가는 한편 행복지수는 병행하여 올라가지 않고 있다. 신경, 뇌과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 할 것은 사실이지만 요행수와 기적을 바라고 기대해 보는 인간의 심정이 문제다.

결론으로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미래 인간의 성생활의 갈등, 남녀평등 문제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지만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는 문제는 각자가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명제는 언제나 우리 인간 사회에 남아 있을 것이다.

끝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유를 최대한하려는 노력은 적다는 어느 저널리스트의 의견에 공감하며 글을 맺는다.

-코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 2021-22 회비 및 후원금 현황

## 안우성 50대 회기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1949 고영철 1950 나수섭
- 1954 김갑균 이동식 1955 노용면
- 1956 김윤태 박상기 서상철 1957 임종식
-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김학륜 김해암 문석면 류치열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송세엽 유영호 이동립 이만택 이종국 이종용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상진 김교안 김병구 김용덕 나길진 방석욱 이교락 이종수 임낙중 서경화  
신한수 정태진 최용천 최대환 최종진 최혜숙 한달수 한성업
- 1960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준명 오신중 이광준  
이경화 이덕승 이상일 임종원 임필순 전희근 최홍락 한성수
- 1961 강차욱 고의걸 곽동린 김영철 김에흠 김학철 김화섭 박승균 박준환 박장생  
박호성 서휘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동해 이준우 이재두 이재승 이한수  
이회백 이철희 장성환 장태환 정두현 정철용 조은순 진창건 차철준 최공창  
최용성 황현상
- 1962 고희호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박종건 박종승 박진수 승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원 이석우 이상복 이영웅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 1963 강영호 고영희 권영조 김갑중 김광섭 김승태 김경일 김현철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현학 김충열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윤영섭 윤영욱 윤진수 이병준 이수인 이송현 이종두 이재명  
임춘수 장세곤 정관호 조한원 진병학 추재욱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선원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박세준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광현 윤홍기 이용만 이정은 이주영 이정필 이재풍  
이종성 이종오 이흥표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조창언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선우세현
- 1965 구경회 김길중 김옥현 김덕진 박수안 신백효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정의  
이재진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장재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최동욱  
최동욱 최영인 채도경 채무원 한재은 한원민 홍수용
- 1966 김우신 김은한 김용재 김의신 김진수 김진호 김충규 이명희 이인수 이영일  
장한교 조규용 정량수 조관상 최순채 최영자 한일성 허서룡 황 철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우준균 유 달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진수 이태안 최무용 최승용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진홍 김재관 김주평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영일 서윤석 송창호 신용계 안금환 안세현 유우영 이건일  
이병순 이상훈 정재성 최 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윤성 김중권 김창남 박수용 송용재 서 량 신영찬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오선웅 육순재 윤효윤 이승공 이용환 이충호 이지훈 임안무 임용규  
전덕성 정한규 최종일 최종진
- 1970 김형달 문성길 오석일 장극기 송요준 박홍식 방준재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홍 건 홍종철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곽승용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 훈 김효순  
김창구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상헌 서정자 양성훈 오동환 오상현  
온기철 이남수 이상길 이원택 이종일 이종준 장 철 정인용 조병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최영철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정진우 정희현 조경호
-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민인기 방병기 박진섭 송정자 서인석 심완섭 오인환  
위장호 이계석 조재종
- 1974 권철수 구재훈 김웅진 유영준 임자은
- 1975 김명호 김원정 김자역 박인영 배영훈 전경배 조철영 한민우 한 일
- 1976 김정아 유영걸 한승신 1977 강준희 김동훈 박일우 박정식
- 1978 김동수 최은복 1979 이승호
- 1980 박남훈 1982 차민영
- 1983 전원일 1984 구철회 서귀숙 정희국 오도영
- 1985 김자성 1991 강민중 홍정연
- 1994 안상훈 1995 권준혁
- 2000 박은경 2001 김민정 김태곤
- 2002 최태웅 2008 박종한 이익재
- 2009 송경민

## 농담 골목

### 부채와 자산의 차이는?

술 취한 남자 친구는 부채이고 술 취한 여자 친구는 자산이다. - (이덕승)

### Inflation

회계사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아내: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남편: 인플레이션, 응, 그건, 예를 들자면 당신 몸매는 36-24-36 이었는데 지금은 48-40-48이 되었지. 당신의 모든 것이 전 보다 커졌는데 당신의 가치는 옛날 보다 떨어졌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야. - (이덕승)

### Text message

오랜만에 마누라한테서 문자가 왔다.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라고.

그래서 심각하게 30분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문자가 왔다.

"여보, 미안해... 다른 녀한테 보낸다는게 그만..." - (이덕승)

털털거리며 달리는 시골 버스 안이었다.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기사 양반에게 아몬드 한 줌을 건넸다. 마침 출출하던 기사 양반은 고소한 아몬드를 까드득 까드득 씹어 먹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아몬드 한 줌을 또 건넸다. 웬걸 이렇게 자꾸 주세요? 할머니 드시지 않고요. 황감해 하는 기사 양반에게 할머니가 말했다. "응, 내가 이가 안 좋아서 딱딱한 걸 잘 못 씹어먹어." 기사 양반이 흘깃 보니 할머니 손에는 '아몬드 초콜렛' 봉지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는 곁에 발린 초콜릿을 빨아먹은 아몬드를 모아 살뜰히 건네신 것이었다. (현대문학-황인숙)

-이수인 (63)

## 37th CONVENTION DONATION

- 임종식(57)1,000 김해암(58) 100 강상진(59) 500 최종진(59) 200 권기홍(60) 500
- 황현상(61) 200 정정수(62) 200 김태웅(63)1,000 권정덕(64) 200 이재풍(64) 100
- 이흥표(64) 300 채무원(65)1,000 김영남(68) 500 김진홍(68) 200 서윤석(68) 500
- 유우영(68) 300 윤효윤(69) 100 전덕성(69) 200 이승공(69) 200 김성환(71)1,000
- 박동수(71) 100 온기철(71)1,000 오용호(72) 200 김천일(73) 100 박진섭(73) 200
- 김웅진(74) 100 권철수(74) 100 유영준(75) 150 배영훈(75) 75 김정아(76)3,500
- 유영걸(76) 150 한승신(76)3,500 서귀숙(84) 100 신원석(88) 800
- 송민희(Mrs. 서진석 68) 1,000 서울메디칼(차민영 82) 7,000 대웅제약 1,000
- 서울의대 동창회 2,000 서울대학교 병원 2,000 DIH 1,000
- 한국 보건 진흥원 1,000 GENOSCO 1,000
- Morgan Stanley 1,000

## GREEN PROJECT FUND

- 최창송(58)1,000 정정수(62) 375 이흥표(64) 200 홍광신(68) 100 차재철(68) 75
- 이성길(71) 100 오용호(72) 300 서인석(73) 100 김원정(75) 100 박인영(75) 150
- 조철영(75) 100 김정아(76) 300 한승신(73) 300 박남훈(80) 200 서귀숙(84) 100
- 홍정연(91) 100 박은경(00) 100 최태웅(02) 100

## CHARITY FUND

- 박승균(61) 100 라찬국(64) 100 신두식(64) 100 홍선경(64) 100 최영인(65) 100
- 최영자(66) 200 오용호(72) 300 민인기(73) 200 김웅진(74) 100 한 일(75) 375
-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채도경(99) 100
- \*최영자(66) 제8회 합춘공로상 상금 전액(500만원)

## SCHOLARSHIP FUND

- 한성수(60) 150 임필순(60) 200 황현상(61) 100 고희호(62) 100 김한중(62) 500
- 이기범(62) 375 박종건(62) 500 박종승(62) 100 김태웅(63)10,000장세곤(63) 350
- 한광수(63) 100 한기현(63) 375 이재풍(64) 100 이흥표(64) 200 안연승(64) 400
- 이광선(65) 75 강명식(67) 175 이영균(67) 150 김주평(68) 75 차재철(68) 100
- 박수용(69) 175 김효순(71) 125 서정자(71) 400 이기진(72) 500 김웅진(74) 100
- 김자역(75) 500 유영걸(76) 100 김동수(78) 100 구철회(84) 75

## GENERAL DONATION

- 김갑균(54) 100 노용면(55) 325 서상철(56) 75 김석희(58) 200 박용화(58) 100
- 최창송(58) 100 문석면(58) 150 김교안(59) 50 정태진(59) 75 한성업(59) 100
- 최혜숙(59) 225 권기홍(60)1,550 박명근(60) 50 김인환(60) 200 이경화(60) 75
- 이상일(60)1,000 강창욱(61) 200 손기용(61) 200 이철희(61) 200 장성환(61) 100
- 진창건(61) 75 최용성(61) 100 황현상(61) 100 남성희(62) 125 박종승(62) 150
- 권영조(63) 500 김현학(63) 75 송용덕(63) 200 신경호(63) 75 이병준(63) 100
- 임춘수(63) 200 조한원(63) 75 추재욱(63) 500 권정덕(64) 100 김태환(64) 125
- 이재풍(64) 250 이흥표(64) 175 최준희(64) 200 박수안(65) 100 이한승(65) 50
- 정길화(65) 100 김진수(66) 25 김진호(66) 100 이인수(66) 100 정량수(66) 75
- 김영남(68) 200 이건일(68) 300 이병순(68) 875 이상훈(68) 175 차재철(68) 125
- 김중권(69) 200 서 량(69) 375 윤효윤(69) 100 이승공(69) 100 이용환(69) 100
- 김형달(70) 100 오석일(70) 100 곽승용(71) 125 김일영(71)1,000 김유식(71) 75
- 배성호(71) 175 오동환(71) 200 이남수(71) 75 장 철(71) 75 조병선(71) 475
- 하준영(71) 75 정균희(72) 500 조경호(72) 250 김천일(73) 100 나두섭(73) 300
- 박진섭(73) 200 이계석(73) 100 서인석(73) 100 권철수(74) 100 유영준(74) 175
- 박인영(75) 50 조철영(75) 100 한민우(75) 175 김동훈(77) 200 차민영(82)1,000
- 오도영(83) 75 전원일(83) 125 서귀숙(84) 100 김자성(85) 100 박정미(85) 200
- 권준혁(95) 175 조수정(03) 125 이정민 여자(Mrs. 차봉희 57) 1,000
- 윤치자 여자(Mrs. 윤좌병 63) 200 Mrs. 이재명(63) 200
- \*이흥표(64) 제8회 합춘공로상 상금 전액(500만원)

## AASCDTF DONATION

- 황현상(61) 100 김태환(64) 50 한영수(67) 200 강창홍(71) 100 이성길(71) 100

## 제51대 전경배 회기 (2022년 7월 1일 이후)

Dues 이회백(61) 이영균(67)

38th CONVENTION DONATION 이재승(61) 2,000 김명호(75)2,000

GREEN PROJECT FUND 전경배(75) 10,000

## SCHOLARSHIP FUND

김공자 여자 (고 60 김국민 부인) 2,000 Green Project 지원의 scholarship

이상일(60) 10,000 Green Project 지원의 scholarship

김태웅(63) 10,000 이영균(67) 200

## GENERAL DONATION

이재승(61)3,000 박진섭(73)10,000

## 동창회 사무실 이전 안내

미주동창회 본부 사무실이 아래 주소로 이전하였습니다.

### SNUCMAA

P. O. Box 901, McLean, VA 22101

Tel: (516) 365-5500

snucaa@yahoo.com www.snucaaus.org

업무시간: 주 중, 월에서 금까지 동부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Federal Holiday는 휴무"

업무 시간 외의 전화 절제와

효과적인 업무를 위한 e.mail 교신을 부탁드립니다